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원안가결, 기정예산 대비 2,365억원 증액된 6조 1,594억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8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으며, 기정예산 5조 9,229억원보다 2,365억원(4.0%)이 증액된 6조 1,594억원의 집행부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도 교육청 정책공약의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인 어울림 온 콘서트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용면에서 학생들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 폭력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연천)은 학생들의 마약예방교육 실시여부를 묻고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과 교육청이 예산편성시 사용하는 용어 중 공보와 홍보, 증축과 개축의 차이를 강조하며 행정청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일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도서관 3D 콘텐츠 홀로 매직 구축 사업, 찾아가는 영어체험 교실 사업, 유아교육용 도서 제작 사업 등을 언급하며 도 시·군·구별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사는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고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폐교재산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또한 울

릉도 학교시설은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활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행정의 신뢰까지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인공지능 교육센터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예산을 예로 들며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간의 적합성,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우수정책사례 연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폐교활용과 관련해서도 임대목적대로 임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문판이라 할지라도 2023년 독도달력을 제작하는데 5월에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2024년 달력을 제작할 때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형 공간 만들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음을 언급하며, 교육청 공직자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의회협력과 관련한 예산이 감액됐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의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예산에 비해 자유로운 성격의 지닌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도 교육청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낙후된 지역

교육현장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급식종사자의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발달하는 로봇산업이 주방 내 설비에 적용되어 급식종사자들의 안전과 함께 노동 강도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 운영, 진로교육을 위한 키오스크 배치, 기숙사 자부담 비용을 언급하며 특히 지방소멸을 앞두고 있는 지역은 학생 수가 적어서 학생1인당 기숙사비 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은 군위교육지원청의 예산, 순회교사제 시행 이유, 서울특별시의 기초학력 공개조례 발의, 남녀공학 기숙사 학교의 관리문제, 늘봄 교육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늘봄 교육과 관련하여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 교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교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군 단위 지역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도 교육청의 각종 시범사업이 시 단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와 군은 인구 규모, 인프라, 생활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 추진시 시 단위와 군 단위를 구분하여 군 단위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윤근수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안전한마당 개막행사 참석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1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제17회 서울안전한마당 개막행사에 참석해 개막을 축하하고,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결의식을 가졌다.

서울안전한마당은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국내 최대 규모 안전문화행사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다.

올해는 '치유, 미래를 향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안전문화 축제로 치러진다. 행사에는 7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화재, 생활, 교통, 어울림 등 4개 분야 총 82개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3일간 행사장 곳곳에서 진행된다.

4개 분야별 프로그램은 ▶화재안전 15개(위기탈출 완강기 체험, 물소화기 체험 등) ▶생활안전 34개(온 가족이 함께 배우는 심폐소생술, 다중밀집현장 탈출 등) ▶교통안전 13개(항공승무원 안전체험교실, 지하철 VR 대피체험 등) ▶어울림 20개(팝드론 체험, 소방인생네컷, 반려동물과 함께 위기탈출 등) 등이다.



김현기 의장은 "과유불급(過猶不及), 통상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고 하지만 단 하나 예외가 시민 안전"이라며, "도시노후화와 기후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책의회로의 첫 도약 시작 '행공동공방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수원특례시의회는 행공동공방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발굴한 정책을 5월 12일, '정책제안'의 형태로 시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행공동공방거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은 수원특례시의회의 제1회 정책제안으로, 시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 현장에서 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만든 정책제안 1호! '정책의회'의 시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독립된 지방의회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오고 있다.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회는 지역마다 시의원들이 직접 나가 시민의 필요사항을 듣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책제안'시스템에 따라 의회가 정책을 시에 제안한 후, 사업으로 추진시 예산확보까지 협력할 수 있어 '정책제안'은 시와 의회의 생산적인 협치모델이 될 전망이다.

'정책제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원특례시의회는 2022년 정책예산TF팀을 신설했고, 2023년 정책1.2팀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며,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을 확보하여 정책 개발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 행공동공방거리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행공동공방거리는 수원시가 2012년 팔달문에서 화성행궁에 이르는 행궁로 420m 길을 전통공예품, 찻집, 맛집 등 문화, 쇼핑의 거리로 조성한 구간이다.

수원시가 화성행궁과 함께 수원시의 대표 관광지로 홍보하고 있



나, 주차장과 화장실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바로 인근 북쪽 '행리단길'이 높은 인지도와 증가하는 외부 관광객들로 주목받는 것과도 비교되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공방거리 주민 대상 설문조사서에서도 주차장 면수 확보 및 협소함 개선 필요, 불법주차 문제, 남지터(유적지) 조성사업 장기화에 따른 불편 등이 결과로 나온 바 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방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 ▲주차공간과 ▲화장실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현재, 주차공간은 공영주차장이 협소하고, 공간은 부족하며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의회 정책팀은 '주차공유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신규주차면수를 늘리는 한편, 인근 주차장과 주차공유사업 방안을 제안했다.

화장실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공중화장실이 주변에 2개소 있으나, 공방거리 내 화장실이 없고, 용변기 수가 적어 불편한 상황으로, 민간화장실 지원책을 통해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화장실 안내판까지 확대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수원시민과 관광객들이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담고 있어 이번 수원특례시의회의 정책제안은 공방거리를 조금씩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하며 "의회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편성 역할은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시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더불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정책개발 및 제안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제1호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직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시민-의회-행정 간의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발전하는 도시 수원특례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엄중현 의장, 11일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2023 성남' 개최식 참석

엄중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1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2023 성남' 개최식에 참석했다.

엄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선수를 향한 도민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었으며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이 될 수 있었다"라며 "이번 대회가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더 나은 경기', '더 행복한 내일'을 여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가 선수들이 한껏 준비한 기량을 이번 대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고, 선전하기를 기원한다"라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93만 성남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전화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최식에는 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민



주, 의정부2)과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평택2)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및 참가선수 등 1만 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이날부터 13일까지 3일 간 성남시 일원에서 진행되며 7,486명의 선수가 총 25개 종목에 출전한다.

조혜영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방안 마련 당부

지난 343회 임시회서 보류된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동의안' 수정안 반영해 심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동의안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343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시·군별 쉼터 운영 준비 상황이 미흡해 보류됐으나, 기획경제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15개 시·군별 여건에 따라 유인쉼터, 무인쉼터, 연계형 쉼터를 운영하는 것 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의가 이어졌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시·군별 인구에 따라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설치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지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설치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편의점 등에 설치할 연계형 쉼터 선정 시 야간에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야간에도 운영하는 장소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보면 무인쉼터 설치가 추가 됐는데 무인쉼터다 보니 관리가 잘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쉼터 내 물품이나 환경 정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무인쉼터 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매일 관리가 이루어지면, 쉼터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재운 위원(계룡·국민의힘)은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 등 기존 사업장에서 선정하게 될 텐데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며 "이동노동자와 사업주 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에 협조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줄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쉼터 설치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시·군별 이동노동자들과 시·군 담당부서가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경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리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찾사밭에 담긴 천년의 불꽃”

2023 문경찾사밭 축제 역대 최대인파 속 성료돼



2023 문경찾사밭 축제

찾사밭에 담긴 천년의 불꽃

문경시는 '찾사밭에 담긴 천년의 불꽃'을 주제로 한, 「2023문경찾사밭축제」는 '찾사밭을 원하다! 문경에서 퓌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달 29일부터 7일까지 9일간, 문경시 문경을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일원에서 펼쳐진 「2023문경찾사밭축제」는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속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관람객 인파로 차고 넘치며 대성황을 거두며, 화려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우중 속에 치러진 「2023문경찾사밭축제」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돼, 생활도자기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한·중·일 찾사밭 국제교류전, 전국찾사밭공모대전 등을 통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기장의 하루, 다례시연, 전국발물레경진대회, 전국다례투다대회 등 관람객의 안전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고, 맞춤형 관람객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족, 연인들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컨셉이 그대로 적용됐다.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대한민국의 최고 축제란 평가를 받으며 대박성공을 거두고 성료됐다.

본지 취재진은 개막첫날인 지난 달 29일 12시경, 이곳을 찾았는데, 이날 이곳 문경시 찾사밭축제장은 우중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며 이곳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들이 벌써 1, 2, 3 주차장은 만차, 4 주차장에 가서야 주차공간이 조금 있어 주차를 한 후, 세트장으로 이동했는데, 약 30분 되는 거리를 우산을 쓰고 올라가는 관람객들의 모습에서 이번 문경 찾사밭 축제가 대박성공을 거둘 것이란 확신을 충분히 갖게 해줬다.

이처럼, 오락가락 내리는 비속이지만 엄청난 인파가 축제장을 가득 메웠고, 특히나, 이날 공연이 계획된 주무대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한 2500석의 의자가 가득 차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넘쳐나,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서의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또, 문경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비해 개인 찾잔을 활용한 다례체험과 휴대용 소독기 배부 등 관람객의 건강과 위생을 최우선 과제로 걸맞은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펼쳐 졌다. 관람객 안전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고 맞춤형 관람객 프로그램을 구성, 가족, 연인들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주최측의 세심한 배려가 여지없이 묻어나 이곳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줘, 찬사를 받는 축제로 우뚝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차장

에서 오픈세트장까지 걸어서 30분 이상의 긴 인터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을 위해 중간중간 먹다 남은 음식을 찌꺼기 등을 수거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 대형쓰레기 봉투를 준비해 이를 받아서 처리했고, 특히, 수많은 인파들이 이용할 화장실을 위해 간이화장실, 각 식당에 관람객 누구든지 화장실을 이용 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식당들이 있었고, 또, 화장실 청소를 전담할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임명하는 등,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관람객을 배려한 세심한 모습은 참으로 각 지자체가 반면교사로 삼아도 좋을 만큼 매우 고무적이었다.

문경시는 이번 축제를 위해 “Think a head, think prepare”(먼저 생각하고 먼저 준비하라)

라는 말처럼 준비진자의 특권을 심본 발휘해 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시행 전반에 걸쳐 완벽한 축제를 치러 냈다.

개막첫날, 화려한 개막전을 필두로 문경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는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내 백제궁에서 문경도자기협동조합과 협업한 「문경도자기와 향토음식 한상차림전」을 기획시연 했다. 이 한상차림전은 문경의 숨은 맛집 10개소와 문경의 도예명장 10인의 작품을 1:1 매칭, 음식과 도자기의 콜라보 한상차림으로 전통도자기의 콜라보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내 실용성을 강조 하는 생활도자기로 재탄생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점에서 더욱 가치 있는 자리가 됐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의 도자기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 식탁이다! 전통 도자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생활도자기로 나아가야 할 때 우리 도자기 산업은 무궁무진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경시는 찾사밭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1~4일까지 축제장 저택거리 주무대에서 14개 읍·면·동 주민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의 날’을 개최해, 주출난타, 노래교실, 한국무용, 합창, 라인-스포츠 댄스, 풍물공연 등 39개팀이 참가해 우리 동네 자랑과 다양한 지역 문화 공연을 하며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띄웠고, 신현국 문경시장은 “4년만에 대면으로 열린 찾사밭 축제에서 주민들을 축제장으로 모시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찾사밭축제를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일, 「2023 문경사랑 연예인 초청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해, 이순재, 정보석 등 연예인 40여 명과 초청 기업인 120여명 등 160여 명이 참가, 문경골프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해 재능기부와 참가 기

업인들의 후원을 통해 소아 환우 및 불우 청소년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내 개인 및 기업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높였으며, 이날,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경찾사밭축제와 함께하는 2023 문경사랑 연예인 초청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



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문경시는 앞으로도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에는 문경 찾사밭과 꽃 그리고 차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관람객에 알리고자 처음 개최된 「제1회 다화경연대회」에서 전국 참가자 15명이 경쟁을 펼쳐,, 엄격한 심사위원 4인 소속의 김애란님이 영예의 대상과 함께 상금 1백만원을 차지했다.



특히나, 5일 어린이날,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는 간간히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어린이의 손을 잡고 축제장을 방문한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옹이마술사의 신기한 마술이야기, 선비복장의 사회자와 차담이가 축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관람객과 즉석 퀴즈를 진행하는 ‘찾퀴즈 온더블락’과 찾사밭 페달보트, 축제에 참가한 도예인들이 가족단위 관람객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도자기를 만드는 깜짝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억을 선사하는 등 축제장 곳곳에서 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신나는 축제를 즐겼다.

또 이날, 전통도예의 본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 전통 도예 우수성 홍보는 물론 발물레를 이용해 작품을 창작했던 선조 도공들의 장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27명의 일반인 및 도예 전공 학생들이 참여, 찾사밭 3점, 향아리 1점을 1:2부로 나눠 1시간 30분동안 「문경전국발물레 경진대회」를 개최해, 문경 도자기 명인 박연태 심사위원



보활동 이었다. 시는 이번 축제를 위해 각종 방송언론 매체를 통한 지면광고, 동영상(스팟)광고 생방송 인터뷰 등은 물론, 부산 등 각종 박람회 참석, 서울청계광장 현장홍보, SNS와 유튜브를 통한 행사장현장 체험 홍보, 리플릿, 현수막, 포스터를 통한 지역홍보 등을 진행해 이번 축제가 전국민적인 축제의 장이 펼쳐질 수 밖에 없도록 완벽한 홍보 활동을 펼친 점이다.

▲또한, 그동안 새재박물관과 도자기전시관, 문경새재오픈세트장에 서만 추진하던 행사와 달리 지난 축제 장소를 확대 운영해 보다 큰 대박성공을 이끌어 냈다는 점과 ▲뒤에서 묵묵히 축제를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은 많은 자원봉사단의 숨은 노력은 가히 100점을 쥐고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매우 헌신적이었다.



장포함 4명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문성윤씨(남, 경기 용인시 소재)가 대상을 수상했고, 최우수상 이진한, 우수상 김예형, 장려상 박경훈·남건우, 특별상 문찬균·조항서·배영원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처럼 이번에 개최된 「제 25회 2023문경찾사밭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먼저 문경전통도자기가 본질적 가치를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실용성을 강조하는 생활도자기로 재탄생하는 전환점의 시도였다. 문경찾사밭축제 추진위원회는 값비싼 도자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1~2만원 대 생활도자기는 물론, 고가의 생활도자기도 찾사밭축제 참가 도예인들이 하루 20~30점씩 정도는 10만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음으로써 축제 도예인 부스는 문경도자기를 구입 하려는 전국 각지의 차 동호인들과 관람객들로 차고 넘쳤으며, 일부 도예인 부스는 매일 오전에 생활도자기가 동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등 엄청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 뿐만아니라 축제장 곳곳에

서도 문경찾사밭축제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도자기 빛기 체험행사를 비롯, 참여형 콘텐츠로 축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50여 가지가 넘는 체험·특별·알찬·부대행사를 즐기 위한 관람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어 축제준비위원회는 연신 콧소리가 절로 흘러 나왔다.

▲특히 정해진 시간 내 찾사밭의 산에서 피하는 ‘원픽 생활자기 이벤트’, 풀장 속 숨어있는 황금찾사밭 찾아오면 상품을 교환해 주는 ‘황금찾사밭을 찾아라’, 차와 찾사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스탠딩 차차리’, 생활자기와 문경도자기 명품경매 행사 등의 프로그램은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흥을 더욱 북돋아 줬다. ▲그리고 차별화된 흥

이처럼 문경시는 이번 2023 문경축제에서 2~30만명의 엄청난 관람객이 찾아와 문경성시를 이룸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로 경제적 효과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로 명성을 더욱 널리 떨치게 됐으며,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축제로서 꿈을 안고 나아가 힘차게 변화·발전해 갈것으로 보인다. 축제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에는 보다 더 알찬 축제를 준비함으로써 꿈의 100만명 관람객 시대를 확실히 열겠다는 축제위원장의 말처럼 이 꿈의 실현이 결코 허언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보며 그동안 축제를 위해 노력해 온 문경시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려 본다.

윤근수기자

‘문경 2023 찾사밭 축제’ 악천후속에도 수십만명 다녀가

축제 명칭 등 다변화 왜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축제로 막내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NO EXIT' 동참

“마약 청정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SNS 릴레이 캠페인 'NO EXIT'에 동참하고, “마약 청정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2일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수원에서도 마약 유통책이 검거된 사례가 있었다”며 “마약은 시작하면 절대 끝낼 수 없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끔찍한 범죄”고 말했다. 이어 “마약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NO EXIT' 캠페인은 지난달 26일 시작했다. 지목을 받은 사람



이 마약범죄 예방 참여를 독려하는 인증사진을 찍은 뒤 SNS에 올리고, 캠페인을 이어갈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김중보 수원남부경찰서장의 지

조혜영기자

고양특례시, 고양시 모범운전자회 의견 청취

2023 열린시정 모범운전자회와 소통 간담회 실시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고양시 모범운전자회와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덕양구청 소회의실에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고양시 모범운전자회 회장과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주변 교통정리, 고양국제꽃박람회 교통봉사, 명절 특별교통근로 등 고양시 교통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범운전자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의 사항으로는 모범운전자회의 사무실 마련 및 주차장 이용 불편해소, 보조금 증액 등이 논의됐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시청사 백석동 이전,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민선8기 고양시 핵심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는 등 자유로운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이동환 시장은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단체



와 시민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수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 자리를 빌려 고양시 교통발전을 위해 애쓰는 모범운

전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관련부서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영기기자

제1회 시흥시청소년의 날 맞아 시흥 전역에서 청소년 축제 ‘풍성’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은 5월 청소년의 날을 맞아 다양한 청소년 축제를 13일 시흥 전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12월 22일에 제정된 시흥시청소년기본조례 17조(청소년의 날 등) 1항 ‘시흥시청소년의날’은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로 한다’에 의거해 마련된 것으로, 총 3개의 축제가 청소년들을 맞이한다.

△청소년청년페스티벌 ‘청.청.페(C.C.F)’ △시흥시어울림마당 1회차 ‘I see 흥! 투어 in 능곡’ △‘꿈, 나다 : 청소년X청년 그계바로 나다’ 등이 준비돼 있다.

청소년청년페스티벌 ‘청.청.페(C.C.F)’는 시흥시 청년스테이션 및 정왕3호광장 일대에서 운영된다. 재단 남부권 5개 기관인 청소년문화의집(△정왕, △구미, △월곡, △배곧1, △배곧2)이 연합해 관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유일무이한 축제를 선보인다.

‘라퍼커션’ 공연으로 문을 여는 이번 축제는 약 1천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여하며, ‘제1회 시흥시 청소년의 날’ 기념식으로 ‘시흥시 청소년의 날’ 퍼포먼스, 모범 청소년 및 육성·보호 유공 표창을 수

여해 뜻깊은 날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청소년청년페스티벌 ‘청.청.페(C.C.F)’의 경우 “공청준(청년-시흥시청년정책위원회, 시흥시청년정책협의회, 한국공학대학교 총학생회가 운영하는 진로부스), ‘청-하준(청소년 조례 및 청소년 정책 소개존), ‘흥청준(다양한 체험부스)’ 등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부스 운영 이외에도 청소년 댄스, 전문 댄스 팀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흥시어울림마당 1회차 ‘I see 흥! 투어 in 능곡’은 시흥시 내 다양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어울림마당’이라는 주제로 기획됐다. 지역 내 청소년 문화, 예술, 놀이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체험 부스(△공정무역체험(Fair Trade ‘CO-PEACE’) △mini 로망놀이터 △청소년안전퀴즈 YSQ(Youth Safety Quiz))와 버스킹 공연(댄스, 밴드, 보컬, 치어리딩 등)이 펼쳐진다.

능곡에서 시작된 1회차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9월까지 매월 ‘I See 흥! 투어 in(목감, 배곧, 대야, 연성)’ 순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꿈, 나다 : 청소년X청년 그계바로 나다’는 재단 북부권역 청소년기관(시흥시청소년수련관, 매화청소년문화센터, 시흥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 협력해 운영한다. 이날 행사는 ‘꿈, 그리다’(체험부스)와 ‘꿈, 나다’(동아리공연)으로 나눠 동시에 진행된다. ‘꿈, 그리다’의 경우 성장주니어(초등, 중등, 고등, 후기청소년기) 체험부스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꿈, 나다’는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합창, 댄스, 힙합, 밴드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돼 관객은 물론 부스를 체험하는 청소년과 시민들도 행사장 어디에서나 함께 즐길 수 있다.

(재)시흥시청소년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가 제정된 뒤, 제1회 시흥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시흥시의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시흥시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지급 속도 낸다

광명시, 12일 현대이지웰,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광명시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명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은 광명시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한 만 50세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12일 (주)현대이지웰,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충진 (주)현대이지웰 상무, 노대성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평생학습지원금 예산지원 및 총괄관리를 맡고, (주)현대이지웰은 신청·사용 플랫폼, NH농협은행은 카드 발급과 지원금 정산을 각각 담당한다.

광명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6월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전산개발과 사용자 발굴 및 등록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연내 평생학습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 평



▲ 광명시는 12일 (주)현대이지웰, NH농협은행과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사진 왼쪽부터 김충진 (주)현대이지웰 상무, 박승원 광명시장, 노대성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장)

생학습지원금은 보편적 교육 복지의 첫걸음을 떼는 정책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진 (주)현대이지웰 상무는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제휴업체

관리 등 지원업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대성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장은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3월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윤용민기자

인천경제청, 송도에 전국최초 인공지능·메타버스 교육센터 들어선다

인천경제청·네이버·NSIC, 건립 양해각서 체결...NSIC 공공기여 사업 추진 일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전국 최초로 민간협력 인공지능(AI) 및 메타버스 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및 메타버스 교육·체험·전시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골자는 IFEZ에 최적화된 창업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AI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교육공간 및 체험·전시공간을 건립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등은 앞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적합한 위치와 시설 규모, 세부 운영계획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올 하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9년 7월 NSIC와 체결된 ‘공공기여 및 개

발 활성화’를 위한 합의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NSIC는 계열사인 포스코건설과 공동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16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및 메타버스 교육·체험·전시시설은 AI·메타버스와 관련한 교육공간 구축, 프로그램 개발, 체험관 운영 등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내 최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AI 전문기업으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AI 및 클라우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IFEZ가 AI를 포함하는 디지털 혁신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원 (주)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클라우드 및 AI 전문 기업의 명성에 걸

맞게 글로벌 AI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인천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NSIC와 협업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문식 NSIC 대표는 “NSIC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번 공공기여사업을 통해 송도국제도시가 세계 초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지능/초연결 /초융합 기술 기반 환경조성을 함으로서 글로벌 혁신성장 거점으로서의 도약에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용 청장은 “이번 AI 등의 교육센터 및 체험·전시시설 건립은 주변 세계문화박물관, 아드센터인 천, 센트럴파크 등과 연계돼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IFEZ가 초대대 AI 혁신 교육 및 디지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이천시,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관리를 위한 첫 발

이천시 미래성장담당관에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준점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거리를 걷다 보면 다양한 공공시설물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공공시설물들이 깔끔한 디자인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우리의 도시 미관은 한결 쾌적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쉽게도 제각각 설치된 공공시설물들이 눈에 더 들어온다.

도시디자인팀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마주하는 공공공간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개발과 공공시설물의 제작·설치에 있어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형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이천의 정체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시민들과 각 부서별 의견 및 디자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예정인 공공시설물은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

설물, 공급시설물, 안내시설물 등이며, 편의성·안전성·심미성·통일성·정체성·조화성·지속성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공공시설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이천 색(色)’을 선정하고, 권역별 특색을 반영한 ‘포인트 색(色)’을 정해 큰 틀 안에서는 통일성 및 조화성을 주되, 권역별로는 특색 있는 느낌을 나타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천시에서는 기존에도 법에 근거한 이천시 경관계획과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운영해 왔으

며,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관리하고 있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선 경관·공공디자인 계획들과 함께 이번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까지 완료되면 기존보다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용역이 완료되고 거리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설치됐을 때, 공공디자인으로 도시공간의 품격이 향상된 대표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성용기자



화성시, 특례시를 앞두고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

12일, '화성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화성시가 100만 대도시 진입에 맞춰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한 조직 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조직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으며, 민간자문위원으로 아주대학교 권향원 교수, 경기대학교 하태수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용역은 민선8기 공약사업 및 정책방향 실현과 인구 10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는 선진행정 추진동력 확보, 행정수요 및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중점을 두고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는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및 일반구 설치 등 미래지향적 조직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로 전환을 앞둔 지금 혁신정신 자세로 우리 조직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현조직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제시하고,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 조직안을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 100만을 넘어 누구나 살고 싶은 미래도시 화성 건설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안양시, 16일 민방위훈련 관공서·학교 중심 실시...차량통제 미 실시

안양시가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414차 민방위의 날 훈련을 관공서·공공기관·학교를 중심으로 축소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6일 오후 2시부터 2시20분까지 20분 동안 시·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 청사, 선관위, 초·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이번 민방위의 날 훈련 시 훈련공급정보, 주민대피훈련, 차량이동통제 등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6년 만에 전 국민 참여 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국민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자체 실시 예정이었던 시범대피훈련, 비상차로 확보 및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등 계획을 취

소하고, 분청 및 구청 소속 직원들로 훈련 대상을 변경했다. 또 민원 부서의 필수 인원을 훈련 대상에서 제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추후 민방위 훈련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시민 대상은 아니지만 평소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자신의 주변 대피소를 미리 알아두는 등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각 기관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해 향후 시민 참여 훈련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초등학생 안심! 오산시, '아침뜰새돌봄' 운영



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학교 유휴 공간인 도서관 및 유휴 교실을 활용해 2019년부터 아침을 이용한 틈새 돌봄을 제공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교실 리모델링을 통해 돌봄 전용 공간을 마련되자 시는 학교 돌봄터 교실을 공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오산시 고현초, 원당초, 세미초 3개 학교에서 아침돌봄을 운영 중으로 각 학교마다 정원은 20명이다. 마을돌봄강사가 오전 7시부터 등교시간인 9시까지 아이들을 돌본다. 아이들이 학급으로 가기 전 숙제나 준비물 확인,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미술·음악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아침뜰새돌봄은 현재까지 맞벌이 가정의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아침 틈새돌봄을 신청한 보호자는 "1학년인 아이가 아침 일찍 등교를 하게되어 걱정이 컸는데, 아침돌봄 덕분에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양시현/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김동연 경기도지사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공동 대응한다

5·18민주묘지 참배·경기출신 오월영령에 헌화... "오월정신 이어 갈 것"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광역시-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내년 총선과 동시에 여야 대선 공동 공약이었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 공동 제안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광주광역시-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도 담았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던 5·18을 정치와 행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지사와 강 시장은 국립5·18민주묘지와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부근 온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위해 추념탑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정기영 열사를 비롯해 최상필·김윤식·오규만·이재관 열사 등 경기도 출생의 오월 영령을 차례

로 찾아 헌화했다. 앞서 김 지사는 방명록에 '5월의 민주화 영령들이시여, 광주의 혼들이시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 나



라의 앞날을 지켜주소서'라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새 정부 출범 1년인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있고,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며 "오월 영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힘을 합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980년 5월 평범한 일상의 시민들은 나눔과 연대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켰고, 이후 많은 청춘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으로 오월 정신을 잇고, 이를 위해 내년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김보라 안성시장, '2023 GSEF 다카르 포럼'에서 안성시 우수 정책사례를 소개하여 큰 호응 얻어

김보라 안성시장은 2023년 5월1일부터 6일까지 세네갈 다카르에서 열린 "2023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다카르 포럼"에 참여하여 안성시의 우수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연대경제 선도도시 단체인 안성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토론했으며 향후 교류와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김 시장은 올해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의 개최도시인 세네갈 다카르시 바르델레미 디아스 시장의 초대를 받아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자체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다카르 포럼은 전 세계 60여 도시에서 중앙정부 관계자, 시장 등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자, 사회적 경제 기업가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4,000여 명이 참여하여 7개의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본 포럼과 함께 최근 사회연대경제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청년포럼, 여성포럼을 사전포럼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세션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18일 UN총회에서 결의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열린 사회적 경제 분야의 국제행사로,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도 개막식에 참석하여 사회연대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세네갈 흑인문학 박물관에서 국제기구 관계자, 지방정부 단체장, 사회적 경제 전문가 등을 초대하여 진행된 여성포럼 '여성의 권한강화와 지속가능한 공공정책'과 정책 세션에 패널로 참여하여, 오랜 사회적 경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연대경제의 발전 방향과 안성시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조직인 캐나다 샤틀리에의 대표 베아트리스 알랭이 사회를 맡고 김 시장과 주 세네갈 유럽연합 대사, 북아프리카 시장연합 부회장이인 모로코 아바우아 시장, 주 세네갈 오스트리아 대사 등이 패널로 참석한 해당 세션에서는 UN이 사회연대경제 결의안을 채택한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적 경제 발전에 있어 여성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 시장은 발표에서 "사회적 경제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주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수단이자 전략"이라고 말하며,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 활동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해 패널과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시장은 세션 참여뿐만 아니라

다카르시 바르델레미 디아스 시장,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의장인 프랑스 보르도시 피에르 위르믹 시장, 스페인 빌바오시 대표단 등과의 개별면담을 가지는 등 여러 도시 정부 수장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향후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안성시와의 교류 및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양시현/기자

이상일 용인시장, "고기교, 작년만큼 비 오면 또 잠깁니까?"

12일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점검회의서...도로, 산책로, 저지대 침수 대책 논의



"작년만큼 비가 오면 고기교는 물론 주변 상가와 주택이 또 침수되겠습니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점검회의에서 던진 질문이다. 단순하면서도 재발에 대한 우려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깔린 목직한 물음이다.

이날 풍수해와 폭염 등의 여름철 재난 종합대책 점검을 위해 이상일 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각 부서 관계자 25명이 참석해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큰 수해가 발생한 수지구 동천동을 꼽으며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도 좋으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큰 수해가 발생했던 고기교 일대에 또다시 물이 역류해 주민들이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기교 주변 뿐 아니라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중호

우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 하부 준설 상태를 점검하고 용인 전역의 하천변이나 저수지 산책로가 어떤 상태인지 등을 파악해서 비가 많이 내릴 때 수해를 입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작년만큼 비가 왔을 때 작년보다 피해가 덜하도록 대비하자"고 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발생한 고기교 일대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낙생저수지에 물길을 내고 하상 역류에 대비해 배수지를 점검한 데 이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앞서 침수도로 등 집중관리구간의 배수구를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저지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해선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물막이나 하수 역류방지 등을 대여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회의를 통해 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시 24시간 재난안전상황

실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또 재난 예보와 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전파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반지하주택이 2곳 등을 포함한 총 57곳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산단 조성 공사가 한창인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현장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시공사와 협의해 안전한 점검 체계를 만든다. 또 관내 주요 공사장에 대해서 집중 호우나 장마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동주택 사업지와 도시개발사업지 등 민간사업장의 현장점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상도로와 위험 교량, 둔치주차장 등 침수 우려 구역 48곳에 대해 진입차단 시설과 예·경보 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조혜영/기자

경북도, 2022년 도정시책 성과우수부서·시군시상

경북도 최우수 부서에 도로철도과, 최우수 시군 경산·의성 선정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북도는 12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2년도 도정추진성과에 대한 우수부서 및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경북도는 지난해 주요 국·도정 시책 추진실적 전반을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도청 8개 부서와 8개 시군에 경북도지사상과 상사업비 등 8억6천200만원(포상금 1억700만원, 상사업비 7억 5천 500만원)을 수여했다.

부서평가는 경북도 소속 101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도정 주요시책, 공약·지시사항 등 추진실적을 평가해 △최우수상 도로철도과 △우수상 과학기술과, 투자유치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장려상 산림자원과, 친환경농업과, 구조구급과, 동물위생시험소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부서인 도로철도과는 경북 철도정책 추진의 최대 숙원사업인 중부선 미연결 구간 '문경~상주~김천 연결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대구1호선 하양~영천(금호)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사통발달 도로·철도 연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미래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

우수상을 받은 과학기술과는 반도체와 로봇의 지방시대를 선도하며

산단대개조(동남권)사업 및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모선정 등 지방혁신의 기회를 마련했다.

투자유치실은 민선7기 투자유치 31조9천428억원(2022년 8조8천228억원)달성 및 SK실트론, LG이노텍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대규모 기업유치에 기여했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은 수출용 딸기 신품종 및 복숭아빵을 개발하고 고품질 다송살 보급을 확대했다.

장려상은 울진산불 진화 및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산림자원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전환을 추진 중인 친환경농업과, 119 아이행복 돌봄터 전 시군 확대 운영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지원체계를 확립한 구조구급과, 인수공통 및 악성 가축전염병 조기 색출 및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추진한 동물위생시험소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시군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과제에 구성된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도정 역점시책 추진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최우수상에 경산시와 의성군, 우수상에 구미시, 김천시,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도약상에는 고령군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시로 선정된 경산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등 사회복지분야와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등 지역경제분야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뒀고, 전국 최초 산불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형 생활원에 자원봉사(도도Re:숲으로), 청년주도형 서상길 문화마을 도시재생, 보조금 지원 조례 확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의성군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농가 확대 등 지역개발분야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등 환경산림 분야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뒀다.

또 청년마을 만들기, 민·관·학이 협

력해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미래교육지구사업, 방치된 쓰레기산의 폐기물 처리와 생태숲 복원 예산절감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는 울진 산불, 태풍 힌남노 등 각종 재난 속에서도 역대 최대 국가투자예산 확보, 종합첨명도 평가 최고등급 달성, 정부합동평가(정성평가) 우수 등 도정 전반에 풍성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앞으로도 경북의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 본보기가 되도록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지방시대를 주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영천시, 맞춤형 특강의 향연으로 배움의 꽃을 피우다

2023년 영천시민대학, 15일부터 모집

영천시는 시민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2023년 영천시민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

영천시민대학은 평생학습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지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양 증진과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역사, 문화, 인문,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 특강으로 구성된 열린 학습 교육으로 영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5일 김진숙(대구한의대학교 미래라이프융합대학 학장)교수의 특강을 시작으로 이미지 코칭, 심리치료 등 전문성을 반영한 다양한 테마 강좌

를 비롯해 한지 공예, 천연비누 만들기, 보자기 아트와 같은 실습강좌 등 24주차 수업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시민들에게 흥미와 배움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민의 역량 향상을 위해 양질의 강좌부터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라며, "많은 분들이 배움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수강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로 만 19세 이상 영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모집 인원은 50명, 수강료는 3만 원이다.

한반식기자

문경시, 저온피해 농장 방문 피해농가 격려



최근 문경지역에서도 과수 개화기를 전후한 4월 8일, 13일, 27일 기간 중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사과, 배를 비롯한 과수와 감자, 단호박 등이 큰 피해를 입어 농가에 시름이 깊어 가는 가운데, 12일 신한국 문경시장이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피해가 심한 호계면 배나무 과원과 단호박 농장, 동로면의 사과나무 과원 등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황을 살펴보고 위로와 함께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 시련에 빠진 농가에 큰 위안이 되고 있다.

피해신고와 지원대상 규모는 저온피해는 50ha 이상, 서리피해는 30ha 이상의 면적이 피해해 입은 경우이며, 세부적으로는 과수의 경우 꽃 고사율이 50% 이상일 때 해당이 되고 기타 농작물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며 피해조사 기간은 5월 19일까지다.

사과 수정 피해가 극심한 동로면의 김도현씨는 "재해는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는 없는 일이지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함께 격려해 주시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는 모습을 보니 고맙고 위안이 된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과수의 경우 피해를 방지할 경우 내년 농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빨리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농작물 사후 관리에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로 피해농가에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2023년 달성은 'YES! 키즈존'

(재)달성문화재단에서는 오는 5월 21일(일) 오후 2시부터 강정보 마이크 광장 일대에서 'YES! 키즈존' 행사를 개최한다. 'YES! 키즈존'은 어린이 및 가족 단위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축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마음껏 즐기지 못한 지역민의 문화 축제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고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부터 부모님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신발 던지기, 레이저태그 서바이벌, 롤러스케이팅으로 구성된 챌린지 프로그램과 관람객 전체가 참여하는 커뮤니티 쇼, 그 외에도 메타버스 월드, 키즈 놀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피크닉 존에서는 버스킹과 함께 다양한 포토존도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메인 무대에서는 별문쇼와 매직쇼 등 어린이 맞춤형 문화공연이 진행되며 특히, 오후 3시부터는 5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공촌 박사 유튜브 에그박사의 토크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어 평소 공촌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며 흥미와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오후 7시부터는 지역 예술인과 가수 노라조의 축하 공연도 예정되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연출할 계획이다.

박병구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는 문화향유층을 위해 가수 초청의 단순 공연에서 탈피한 가족 중심, 남녀노소 함께 즐기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문화축제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 최초의 법정문화도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만족감과 자신감을 보였다.

김동현기자



남해군 입현매립지, 경남 대표 우수습지 지정

- 경상남도 습지보전위원회, 중요한 생태자원으로 평가
- 내륙-연안습지 형성 등 독특한 습지생태계 보전가치 높아
- 장충남 군수, "입현매립지의 습지보전 및 관리에 더욱 매진"

남해군에 따르면 지역습지 중 하나인 남해읍 '입현매립지'가 올해 경남도 습지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 대표 우수습지로 최종 신규 지정됐다.

'입현매립지'는 남해읍 입현리 406-7번지 일원에 646,864㎡ 면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남해군 내륙습지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내륙습지와 연안습지가 모두 형성된 중요한 생태자원으로, 육상과 해양환경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독특한 습지 생태계로 이뤄졌다.

또한 남해바레길 본선 1코스 바레오시가지와 국가생태탐방로 예코파크길, 해안자전거 2코스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는 입지조건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지난 9일, 경남 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습지보전위원회에서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입현매립지가 검은물

때새,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수달, 삿 등 멸종위기종들의 주요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번식지로도 이용될 수 있는 중요한 생태공간임에 주목하고 그 우수성을 높이 평가했다.

경남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기간은 5월부터 3년간이며, 이와 관련해 지정기간 동안 도비 5천만원을 비롯해 자연보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우선 지원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경남도 대표 우수습지 지정으로 인해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을 지닌 입현매립지의 숨은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내륙-연안습지가 공존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입현매립지의 습지보전 및 관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대표 우수습지'는 습지보호지역 미지정 습지 중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습지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지정되고 있다. 2019년



합천 정양늪, 2020년 함안 질남늪, 2021년 창원 주남저수지와 거제 산촌습지, 2022년 하동 동정호와 함안 뜬늪이 지정됐다.

이윤준기자

구미시, 시민친화형 미래 도시를 향한 새로운 시작

구미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구미시는 11일 시청 3층 상형실에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 안전, 환경, 주거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시 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해결하는 첨단 도시를 뜻하며, 체계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고회에는 김호섭 부시장을 비롯해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 10여명, 스마트도시 워킹그룹(실무 추진단) 관련 직원 25명이 참석했으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방향 및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을 위해 자문단 및 워킹그룹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구미시는 본 용역을 통해 구미 특화형 스마트도시의 기본방향 및 단



계별 추진전략과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방안 배후단지 조성 등 다양한 시설 및 서비스를 발굴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스마트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직 체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자문, 시민 리빙랩 등 전문가 및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시민 친

화형 스마트도시 구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호섭 부시장은 "구미시가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예천군, 인문학 숲길 산책 강연...문화 수준 UP

예천군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다목적실에서 '안 하던 거 해보기'라는 주제로 전유성 코미디언을 초빙해 인문학 숲길 산책 강연을 개최한다.

전유성은 1세대 코미디언으로 지금까지 방송계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공연 기획뿐만 아니라 코미디철학방극장 대표, 청도 코미디시장 대표이사, 유튜브 개그삼국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연을 통해 본인의 삶에 녹아있는 경험·지식을 바탕으로 재치 있는 입담과 함께 유쾌하게 풀어내 관객들을 사로잡는 특별한 강연을 선사할 계획이다.

하미숙 문화관광과장은 "저명한 강사들을 초빙해 우리 지역의 문화 수준을 한층 높이고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감동적인 강연을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이 주최하고 예천농독연구회(회장 권오휘)가 주관하는 '인문학 숲길 산책'은 △5월 20일 전유성 코미디언 '안 하던 거 해 보기' △7월 15일 김봉렬 전 한국예술종합대학 총장 '건축의 시간-영원한 현재' △7월 18일 안도현 단국대 교수 '나는 이렇게 시에 다가간다' △8월 5일 김병호 경북뮤직 칸타빌레 단장 '시와 음악이 있는 오후' △10월 7일 나태주 시인 '시를 통해 해아리는 삶의 지혜' 등 총 5회에 걸쳐 명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한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군민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해

- 윤경희 군수, "축축한 사회안전망 구축, 범죄 사각지대 최소화"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청송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며 군민 안전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해 이상 행위자 신고, 주취자 보호, 재난발생신고 등 30여 건의 실시간 신고와, 범죄수사·가출인 수색 등을 위한 CCTV 영상 정보 120여 건을 관계 기관에 열람·제공하여 사건 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신속히 신고 조치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였으며, 이외에도 응급환자발생, 차량 화재 발생, 강풍피해 등을 신속히 확인·신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피해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범죄 취약지에 대한 CCTV 확충과 화질 향상으로 각종 사고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영상 자료 제공으로 범인 검거와 각종 교통사고 피해 조사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9월에는 청송경찰서로부터 신고 공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CCTV가 범죄 예방 효과나 수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재해에도 신속한 상황파악으로 피해를 줄이는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CCTV 확충은 물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개소한 청송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 16명이 4조 3교대로 365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범죄행위, 실종자, 재난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CCTV 800여 대를 관제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서와 유관기관 관련부서 등에 통보해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세포배양장치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주수 군수, "비전과학이 관련 장비개발에 매진하도록 적극적인 지원" 약속



의성군은 지난 11일, 바이오 관련 장비 업체인 비전과학과 세포배양장치 산업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전과학은 1982년 맨해튼 상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1987년 법인으로 전환된 국내 토종 의료가기 및 이화학기기 생산기업으로 원심분리기, 배양기, 항온 항습기, 멸균기, 무균 작업대, 측정 및 계측 기기 제조와 수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영역을 확대해 바이오 의약품 및 배양육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장비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성 소재 경북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에서 세포배양 관련 장비의 공동 개발과 공동사업 발굴·기획 등 세포배양산업 육성·발전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지난 2016년부터 세포배양에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를 기지로 세포배양산업을 육성해 온 의성군은 세포배양 관련 장비 제조기술 보유기업의 세포배양산업 지원센터 입주로 기존 입주 예정 기업인 세포배양 배지 생산기업, 세포배양용 나노구조 산소배기 기술 보유 기업 등과 연계가 가능해 의성 세포배양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전과학 윤경주 대표는 "비전과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성군과 함께 세포배양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국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세포배양 배지, 부품, 배양육 제조 등 기존 입주 기업에 더해 국내 세포 배양 장비 제조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비전과학이 우리 군과 함께하게 되어 큰 힘이 된다"라며, 비전과학이 관련 장비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금자기자

돈(money) 워리, 비 해피

경북도, 경제위기군 자살예방서비스 강화한다

- 경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업무협약 체결 -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생명존중 문화 조성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북도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도민들의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2021년 기준 경북도 자살통계 현황에 따르면 경제적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전체 자살사망자의 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40~50대의 자살 동기 1위가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11일 경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포항·구미지부, 포항시·구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제생활문제 자살예방사업의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발굴해 신용회복 및 서민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연계하고, 신용회복위원회 각 지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도 금융·신용 관련 상담자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심리지원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은 자살예방·생명지킴이 교육, 신용회복·서민지원 제도 교육 등 중사자를 대상으로 상

호 교육지원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최은정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이 채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통합적

으로 해결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직원 소통의 창(窓), 『미스터 선샤인, 권기창이 쏜다!!』

- 권기창 시장, 직원 격려와 사기 진작 위한 소통의 창 카페 운영 - 200여 명의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으로 안동 발전 의견수렴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11일 '직원 소통의 창(窓)', 『미스터 선샤인, 권기창이 쏜다!!』라는 이색적인 직원 소통 행사를 열었다.

'밝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사람'을 뜻하는 '미스터 선샤인'은 안동에 희망찬 미래를 가져올 주민공공의 탄생을 기원하며 마련됐다.

이날 권기창 시장은 200여 명의 직원과 안동 대표 볼충제로 새롭게 재탄생한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에 대한 직원들의 솔직한 소감과 특특 튀는 새로운 아이디어, 개선 방안을 가감 없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직원들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체험부스 운영', '밤에도 즐길 수 있는 콘텐츠 확보로 체류형 관광객 유입', '벗꽃축제와 민속축제를 함께 진행하여 온종일 즐길 수 있는 축제'

행사가 끝난 뒤 권기창 안동시장은 '소통의 창카페'에서 준비된 음료를 나눠주며 직원들과 마주 보고 앉아 생생한 축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

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멀게만 느껴졌던 시장님과 함께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라며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실현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응원받는 느낌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곳은 날씨에도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말을 열었다. 이어,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에 앞서 먼저 직원들과의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신활력플러스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봉화군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12일 군청대회의실에서 봉화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2018년 10개 시군을 시작으로 '23년 현재까지 전국 100개소가 총 사업비 7,000억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는 창의적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인적 자원 양성'과 '조직화'로 농촌의 자립적 성장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예천군 이경철국장의 설명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 기반 부족의 어려움과 함께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현상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고 있는 봉화군에 새로운 성장의 발판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농촌 지역인 봉화의 다양한 문제와 가치를 주민 스스로 제시하고 해결하도록 주체의 제한 없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과 역량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 편성과 전문 지원 인력인 코디네이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자를 지원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특성과 함께 다양한 실행사



를 통한 알기 쉬운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제일 봉화군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립경제기반이 취약하고, 문화와 복지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우리 봉화에 작은 가능성에도 도전하고 개척하는 우리 군민들의 도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박한국 봉화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봉화군신활력플러스사업은 인적자원과 예산이 풍부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봉화에서 더욱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봉화군의 행정지원과 함께 액션그룹의 성장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신활력추진단이 앞장서 봉화군, 봉화군의회와 함께 11일과 12일에 (주)한성식품과 행복중심생협을 대상으로 봉화군 농특산물 및 가공농산물 유통개척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함께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한국 봉화군수는 "최근 농산물의 가격하락, 농자재비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속에 우리 농민들은 해마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유통 판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유통환경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번 협약은 그러한 노력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고 말했다.

봉화군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 봉화군이 2022년 사업에 선정되고 3월에 꾸러지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은 가운데 첫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고, 업무협약과 함께 hansung silpoom trading.co를 통한 미국에 쌀수출 협의와 행복중심생협의 전국 18개 매장에 봉화군 가공농산물 입점 등의 성과를 통해 희망적인 첫발을 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금자기자

영덕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영덕군은 지난 10일, 영덕군청 2층 제1회의실에서 김광열 영덕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추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7가지 핵심 요소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

전보건 확보 ▲정기적 평가 및 개선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공중이용시설물에 안전 점검을 진행해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 요구 및 개선사항의 전반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와 주민 모두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영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문화기자

울진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착한가격'



울진군은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활성화하여 물가안정에 나선다.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6개 업체(갈비와 삼계탕, 관동식육식당, 여울목부식, 영신이분식, 할매국밥, 삼태기식당)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에 따라 재지정 심사를 진행하며, 영업자의 신청, 읍·면장, 소비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위해 울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가격안정 유지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예산도 편성하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한카드와 협업하여 5월 한달 간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캐시백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시행하고 있다.

정문화기자

경북도 신규 양수발전소로 균형발전, 에너지 대전환 선도!

- 경북도 원전과 재생에너지 공존의 필수 설비, 친환경 전기 저장고 유치
- 1GW 2조원 규모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로 새로운 지방시대 주도
- 유지경성(有志竟成)의 마음으로 전도민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장에서 가진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원원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로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에너지 대전환을 함께 만들자"라고 의지를 밝혔다.

양수발전소는 상·하부 댐으로 구성되며 특정 시간대에 남는 잉여전력으로 하부 댐의 물을 양수해 상부 댐에 저장한 후 전력공급이 부족한 시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전기저장고'로써 원전 및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필수 공존 설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발전원이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신규 양수발전소 1.75GW가 반영됨에 따라, 오는 6월 심사를 통해 양수발전소 2~3개소가 선정된다.

울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전국 양수발전 후보지를 사전 조사하고 민간 입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예비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영양군은 현재 예비후보지에 포함돼 양수발전소 유치를 염원하고 있으며, 이번 심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은 이번 신규 발전소를 유치하면 전국 양수발전소의 30%를 차지하는 양수발전소 1위 지역이 되고, 원전에 이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

북의 대표적인 복합 관광지로서 새롭게 개발하고, 연관 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새 희망을 주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주문화원,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선정, 국비 1억1000만원 확보

'풍기인견, 실향민의 절실함이 지어낸 선물'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영주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 공모 사업에 '풍기인견, 실향민의 절실함이 지어낸 선물'이 선정돼 국비 1억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문화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풍기인견과 일생을 함께한 주민들과 풍기인견을 중심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고단했던 삶의 흔적을 구술과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됐다.

풍기인견은 1934년경부터 평남 덕

업으로 발전했고 이때부터 풍기를 대표하는 전통산업으로 자리 잡고 현재까지 국내 인견직 최대 생산지역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지역주민 10명을 생활사 기록가로 선발, 교육 후 구술 채록과 영상 아카이빙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사업추진은 총 3단계로 먼저 구술 아카데미를 통해 구술을 배운 뒤, 전문가와 함께 생활사 구술에 참여하고 영상 기록을 병행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구술은 책자 발간, 영상 기록은 문화 포털 지역N문화 등 온라인 플랫폼에 담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김기진 원장은 "지역문화원의 경쟁력과 강력한 힘은 지역사 기록과 구술에서 나온다"며 "이번 사업은 그동안의 기록과 구술 경험을 토대로 풍기인견을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양수발전유치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 개최해

- 4~5,000여명의 영양군민 및 출향민 참가, 양수발전열기 한껏 고조돼
- 오도창 영양군수, "반드시 양수발전 유치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혀

영양군은 지난 11일 15시, 18회 영양군산나물축제 특설무대에서 3,000여명의 영양군민 및 출향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군 양수발전 유치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 내외빈 소개, 개회선언, 대회사, 축사에 이어 축하공연, 호소문 낭독, 고향의 봄 합창, 구호제창, 결의문 채택, 산나물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건립이 최적의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양수발전소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다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면서 "우리 영양군민들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반드시 양수발전 유치를 이룩해내자면서 제가 이를 악물고 앞장 서나겠다"고 강력하게 호소해역시 '영양군수는 믿음직 오도창'이란 확신을 영양군민들에게 각인시켜줬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축사에서 오도창 영양군수를 치켜 세우며 "오도창 영양군수가 있는 한, 지역구 박형수 국회의원의 힘이 있는 한 양수발전소가 다른데로 갈 여력이 없다"면서 "영양양수발전소 유치를 반드시 영양군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신을 심어 주며, 영양군민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심어 줬다.

또한, 박형수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양수발전유치시 경제적 기대효과를 조목조목 소개한 후, "영양군민모두의 염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 영양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양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최대의 무기가 바로 영양군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만 영양양수발전소 유치를 할 수 있다"며 영양군민의 단합을 강조했다.

또, 안재범 영양군노인회 회장은 축사에서 "80평생을 살면서 이처럼 우리 영양군이 단합된 모습은 처음 봤다"면서 "한목소리 한마음으로 반드시 양수발전소를 유치하자"고 역

설했다.

특히, 이날 영양공무원 정지윤님의 호소문은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영양양수발전소 유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한 욕구를 분출시키게 했다. 그녀는 "영양군과 생소한 외지에서 이곳 영양군으로 들어와 공무원이돼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있다"는 말로 시작된 호소문은 참석한 모두의 가슴에 가슴 찡한 감동을 불러 일으켜 줬다. 이어 우리의 염원을 담은 고향의



막이다" 구호제창, 양봉철 상임위원장의 결의문 낭독과 힘찬 구호제창이 펼쳐졌으며, 마지막으로



봄 노래 합창과 '양수발전소' 영양이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를 끝으로 이날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범국민결의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제 영양군의 살길은 정해졌다.

윤근수기자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처치교육 및 주요 관광지 탐방 실시



사천시가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응급처치교육과 함께 사천시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해설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응급처치 교육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처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 탐방 학습으로 방문객에게 보다 양질의 해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중앙 응급처치 교육센터 전임강사의 진행으로 심폐소생술(CPR)과 하임리히요법 등 기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1시간 동안 교육받았다.

응급처치 교육 후 곧바로 실시된 관내 주요 관광지 탐방은 최근 초양도에 건설된 해발 72m가 넘는 사천아이 대관람차를 비롯해 지난 1월 개통된 청닐공원의 문화오름, 그 외

에 백천사 성보 유물 전시관, 녹도유적지 등 최근 변화되고 추가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설사들이 숙지해야 할 곳을 선정하여 심층 탐방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계기로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전문성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천의 얼굴인 문화관광해설사 함께 사천시만의 특색있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하여 보다 양질의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사천시를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25일 관광진흥과장 주제로 간담회를 통해 해설사들의 관광버스 동행 해설 시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윤준기자

예천박물관, 정조대왕 효행 유적 활용 콘텐츠 개발 MOU 체결

수원화성박물관과 사도세자 태실 유적을 중심으로 박물관 콘텐츠 개발 맞손



예천군 예천박물관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수원화성박물관과 정조대왕의 효행 유적 활용으로 문화유산 발전 및 박물관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정조대왕의 효를 주제로 한 콘텐츠 연구·개발 및 전시·교육·행사 협력 △할과 무예를 연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교육 콘텐츠 연계 방안 마련 △기타 상호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에 양 기관은 정조대왕과 사도세자를 주제로 한 전시 및 교육을 추진하고 지역 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상호 답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또한, 실질적인 교류 협력으로 정조대왕과 사도세자 관련 자료를 활용해 박물관형 콘텐츠 개발과 이를 이용한 지역 문화 기반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부의장과 정광량 수원박물관장사업소장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양 기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하미숙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조대왕의 효를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지역민들의 역사 문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 명봉사에 있는 사도세자 태실은 효심이 가득한 정조대왕이 즉위 이후 자신의 태실을 가봉하지 않고 아버지 태실을 왕의 격식으로 조성한 곳으로 경상북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화성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고 혜경궁 홍씨와 노후를 보내려고 했던 정조대왕의 효 사상이 깃든 곳으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축물로 예천군과 수원시는 깊은 연관이 있는 지역이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관 운영

-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1호 홍보대사 이정재 씨도 지원자격 나선다!
- 박형준 시장 "2030부산세계박람회 후보도시 부산 열기 잘 전달될 것"

부산시와 코리아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13 ~ 15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시장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관 운영은 '2023코리아엑스포'와 연계해 진행된다. '2023코리아엑스포'는 한국기업의 유럽 지역 판로개척과 현지사업 확장을 위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우수 한국기업 200여 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케이(K)-산업을 전시·소개한다.

이번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관은 전시장을 찾는 현지 기업인, 관광객, 언론인 등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개최후보도시 부산을 알리기 운영했다. 홍보관에는 유럽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류콘텐츠 등이 담긴 홍보영상도 송출되는 200인치 대형 LED 스크린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부제를 소개하는 주제관, 기념촬영을 위한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 홍보관 운영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제1호 홍보대사 이자 세계적인 인기 배우인 이정재 씨가 홍보관을 방문하는 등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와 유치 열기 조성에 직접 지원자격을 나섰다. 그는 넷플릭스 역사상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한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주인공으로 출연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등 미국 주요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남우 주연상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워즈'의 '애콜라이



트에 제다이 마스터' 역으로 캐스팅되는 등 해외에서도 인기가 상당하다.

국내외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도 이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지원에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정재 씨는 현지시각으로 5월 1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개막행사에 참석, 홍보관을 방문해 현지 팬들과 만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인터뷰를 가진다.

또한, 포토존에서 양손을 모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시그니처 포즈와 '부산에 유치해'를 외치면서 기념촬영을 해 관람객들과 함께 유치 공감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서, 200인치 대형 LED 스크린에서 이정재 씨가 직접 출연해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한 방송 광고(TV CF)와 엑스포 프레젠틸(X4 present) 뮤직비디오 등을 현지 관람객들과 함께 감상하며 부산의 매력과 강점을 소개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주제와 부주제를 소개하는 주제관으로 자리를 옮겨 태블릿 피씨(PC)를 활용, 2030부산세계박람회 핵심 키워드를 전달함으로써 현지 주요인사와 언론매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홍보관 홍보를 위해 누리소통망(SNS) 이벤트도 개최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포토존 앞에서 찍은 사진을 2030부산세계박람회 누리소통망에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하면 2030부산세계박람회 엠블럼이 새겨진 접이식 부채를 기념품으로 나눠준다.

아울러, 홍보관 운영인력을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으로 선발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의 미와 개최 후보도시인 부산의 매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제박람회기구 본부가 있는 파리 현지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관을 조성해 현

지 관람객들과 주요 언론사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와 개최후보도시 '부산'의 매력과 강점, 대한민국의 뜨거운 유치 열기가 더욱 현장감 있게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개막행사에 참석해 주신 이정재 씨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최지 결정까지 남은 기간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및 홍보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2023코리아엑스포' 행사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관 운영 외에도 제품 쇼케이스와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돼 한국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최신 트렌드와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며, 또한 이를 통한 한-불간 경제문화 교류에도 힘쓸 예정이다.

송종진기자

한울본부, '2023년 사업자지원사업 워크숍' 성료돼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진솔한 소통 및 화합의 장 마련
- 박범수 본부장, "울진과 함께 호흡하고 울진 발전에 기여하는 한울본부"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10일, 덕구온천호텔 대연회장에서 울진군청, 군의회, 교육지원청, 울진의료원의 주요 인사와 지역단체 및 주민대표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사업자지원사업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설치원 강사의 '소통 및 스트레스 관리' 특강과 원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안내, 주요 사업자지원사업 성과공유, 사회공헌 활동 소개 등 지역민과의 진솔한 소통 및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 참석자들은 사업자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

안과 내년도 공모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고, 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도 진행하는 등 매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주민 K모씨(남, 57시)는 "한울본부가 우리 울진군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박범수 본부장은 "이번 2023 사업자지원사업 워크숍을 통해 이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저희 한울본부가 울진 지역민들과 보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저희 한울본부는 울진과 함께 호흡하며, 울진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한울본부

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공식 출범... 새로운 지역 파워 브랜드 발굴에 앞장

경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시의 핵심가치를 담은 새로운 브랜드 발굴을 위해 공식자문 기구가 출범했다.

경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위원 40명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3 뉴 브랜드 중점 전략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위원은 올 5월 1일부터 2년간 기존의 역사문화 자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무형자산, 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 발굴·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난달 13일에는 자문위원회 활동 근거를 마련한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회의는 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상반기 전체회의, 임원 선출, 위원장 주재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상반기 전체회의에서는 남심숙 미래전략실장이 지역 도시브랜드 현실과 자원현황을 비롯해 세계역사문



화, 첨단과학·산업도시, 강·산·해 정원도시 등의 중점 추진전략을 설명하며 세부과제의 방향성을 정립했다.

임원선출은 자문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위원장은 조철제 경주문화원장, 부위원장은 진병길 신라문화원

장을 위촉했고, 3개 분과 중 천년도시 분과위원장은 신상구 위덕대학교 교수, 황금도시 분과위원장은 서경석 前 한수원 홍보부장, 정원도시 분과위원장은 최재영 前 경주대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이어 선출된 조철제 위원장 주재

로 3대 핵심 전략과 38개 세부 실행과제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 위원들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 홍보를 통해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새로운 브랜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활발히 해 나가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향후 시는 도시 브랜드 전략과제 계획 수립, 장·단기 추진과제 발굴 등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뉴 브랜드는 2021년 도시중합발전계획 용역을 토대로 천년·황금·정원도시라는 3가지 테마를 발굴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새로운 브랜드와 콘텐츠 발굴은 필수"라며 "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고착화된 전통적 이미지에서 탈피한 새로운 지역 파워 브랜드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 역점 현안해결을 위한 광폭 행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주요 역점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휘부 면담, 이달 초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에 이어, 야당 지휘부 면담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지사는 12일 국회본관에서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주요 현안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국가 스마

더불어민주당 박광은 원내대표 만나 역점 현안 건의

트 그린산단인 새만금은 저렴한 부지 비용과 국내 유일의 RE100을 실현하는데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가 되어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내년 1월 18일 특별한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해 마련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한정해 광역교통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권·광주권과 비슷한 광역교통 통행량을 가진 전주권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 설득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서, 지역의 오랜 현안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은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국립의전원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박광은 원내대표는 “작년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지자체 합동평가 전국 1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더 큰 발전과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 입법과 예산 등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주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김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수시로 국회와 부처를 방문해, '24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주요 핵심사업 설득 활동과 함께 현안 법안, 공모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이상의 함평군수, 지역 현안사업 국비 확보 '동분서주'



이상의 함평군수가 중앙부처를 방문, 2024년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상의 군수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를 잇달아 방문해 관계 부처 공무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이 군수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중점 대상 사업과 관련,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현안사업은 ▲ 함평군 말산업 육성사업(25억) ▲ 함

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80억) ▲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314억) 등 총 6개 사업비 712억 원 중 국비 237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또, 특별교부세로 ▲ 손불 석창지구 해안도로 정비사업(6억) ▲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4억) 등 9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67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우리 지역 현안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강진군, “책놀이 운동회로 독서 습관 키워요”



남원시, 제93회 춘향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다중운집 분산대책, 안전관리, 응급환자 대처 상황 면밀히 논의

남원시가 12일 시청 회의실에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축제인 제93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이태원 사고 이후 다중인파 밀집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많아 축제 전에 확실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회에서는 경찰, 소방,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소집,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주요 심의내용은 다중운집 분산대책,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안전관리 요원 배치계획, 구조·구급 등 응급환자 발생지 조치계획 및 대처방안 등으로 특히 심의회에서는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남원춘향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행사 개최 전 현장의 안전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별 유관기관

과 함께 행사장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남원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춘향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축제가 축소 및 비대면으로 개최됐다가 4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전라남도 체육대회 '성화 채화'로 대장정 돌입

20만 전남도민이 화합하는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5월 11일 오전 9시 완도군 장도 정해진 유적지에서 채화됐다.

완도군은 설군(1896년) 이래 처음으로 군에서 개최되는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채화된 성화는 주 선녀에서 신우철 완도군수(초헌관), 허공희 완도군의장(아헌관), 김정선 완도군교육장(중헌관)을 거쳐 최초 성화 주자인 최경철 완도군체육회장에 의해 성화 봉송 차량인 중화차로 옮겨져 261.4km 구간에서 주자, 차량, 선박 봉송이 진행된다.

성화 봉송은 차량 봉송과 주자 봉

송, 선박 봉송으로 나눠 진행되며 주자 봉송은 주주자 1명, 부주자 1명, 호위 주자 8명 등 주자 10명을 1개 조로 편성해 12개 읍면을 순회한 후 5월 11일 오후 5시 30분 완도군청 앞 광장에서 안치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대회 개최식 날인 5월 12일 오후 4시 30분쯤 군청 앞 광장에서 성화 출발식을 갖고, 완도군 공설운동장에서 완도를 빛낸 선수 4인에 의해 최종 봉송 및 점화가 이뤄진다.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정정바다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체전'이란 구호 아래 완도군 공설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도내 22개 시·군 선수 및 임원 7천2백여 명이 총 24개 종목(정식 22개, 시범 1개, 전시 1개)에서 열띤 경쟁을 펼친다.

양영욱/기자

http://chunhyang.org

빛을그리다

2023.5.25^목 ~ 5.29^월

제93회 남원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주최 | 남원시
·주관 | 제93회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 전라북도

화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성황’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 역량강화 강연



▲ 화순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준비했다. 사진은 11일 하니움 민연홀에서 진행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의 강연 시작 전에 협의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구복규 군수의 모습.

전남 화순군이 11일 하니움문화스 포츠센터 민연홀에서 '2023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화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공공위원장인 구복규 화순군수, 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 위원, 13개 읍면 협의체 공공위원장인 읍면장과 민간위원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의 강연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인 이용교 강사가 '복지사각지대 예방과 발굴'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용교 강사는 강연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자는 복지상식을 높여 주민이 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협의체의 역할과 방향을 강조했다.

더불어 "읍면협의체는 위기가구 상시발굴, 사각지대의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구축,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연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위원장인 구복규 화순군수는 "협의체는 지역주민과 같이 적극 소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앞으로도 협의체와 협력해 수요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며,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화순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 함께 하자"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든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을 지원하며 협의체는 올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시작으로 복지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복지공동체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경호/기자

구례군, '그때 그날 기록관' 전시연출 2차 주민설명회 개최



전남 구례군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 중인 그때 그날 기록관 2차 주민 설명회를 5월 10일 14시 주민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례읍사무소 다목적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차 주민설명회 이후 "기억의 흔적 찾기" 포스터를 부착해 홍보한 결과 총 3,500점의 자료를 찾았다. 이 자료를 구례읍의 역사 '민중의 삶' 구례읍의 문화예술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2차 주민설명회를 찾은 주민들은 구례 지역 원로들의 참여 및 육성 녹음 자료 구축, 향후 조성 이후

문화 해설사 배치, 메타버스 연계한 NFT 그림 전시, 1년에 1번씩 특별 전시를 통한 지속적인 자료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그때 그날 기록관이 알차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때 그날 기록관' 사업은 구례읍사무소 근대건축물을 572㎡ 복원 및 리모델링하여 지역문화·근대유산·군민 역사·마을 및 주민 영상·지리 역사를 디지털화하여 기록화하는 사업이다.

김성현/기자

전남도, '3대 가족정원'으로 가족사랑·효 문화 확산

여수서 수국정원 조성...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기원도



전라남도는 12일 여수 장도 예술의 숲 일원에서 가족 사랑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한 '3대 가족정원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후원하고 (사)숲속의 전남이 주관해 열렸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은 70가족과 (사)숲속의 전남 회원, 지역 주민 310여 명이 참석해 가족사랑 의미와 함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수국정원을 조성했다.

3대 가족정원은 할아버지·할머니, 엄마·아빠, 손자·손녀가 함께 가족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하는 정원으로 효와 가족사랑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여덟 번째로 조성된 수국정원은 초여름부터 여름 중순까지 3개월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이며 다른 사람에게 감사, 풍요와 번영, 우아함과 아름다움 등 다양한 의미를 상징한다.

수국의 꽃 하나 하나는 작지만 여럿이 모여 탐스러운 꽃다발을 이루듯 조부모, 부모, 손자·손녀는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수국 550여 그루를 정성껏 심었다.

이밖에 부대행사로 3대가 함께 한 이날을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도록 '수국 가족화본 만들기' 체험도 진행됐다. 또 나무 심고 가꾸는 문화 확산을 위해 참석 가족은 물론 장도 예술의 숲을 찾은 시민에게 홍가시, 황칠, 동백나무 등 묘목 300여 그루를 분양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지영 씨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며 "참석한 가족 모두 수국처럼 더없이 풍요롭고 행복한 가족 사랑이 영원히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황금영 (사)숲속의 전남 이사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대가 함께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가족정원



을 만들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생활주변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는 숲 문화운동을 지속해서 펼쳐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숲과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전남을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3대 가족정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쉼터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3대 가족정원 만들기 행사는 (사)숲속의 전남과 함께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561가족, 2천112명이 참여해 3천220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 사랑·가족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정해명/기자

장흥군, 베트남에 5년 100달러 농특산물 수출



장흥군은 지역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베트남 달랏시에서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무산김, 표고버섯 등 장흥군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이번 판촉행사는 달랏시 청년마트와 야시장에서 열렸다.

장년마트에서 주간 판촉행사를, 야간에는 변화가인 달랏시 야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해 홍보효과를 높였다.

11일에는 장흥군↔직거래지원센터↔청년마트(달랏시) 3차 수출협약이 진행됐다.

베트남 청년마트와 수출협약은 5년 100만 달러 규모로 베트남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은 김과 표고버섯 등을 주력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달랏시 청년마트에는 건물 3층에 약 20평 규모로 장흥 농특산물 전용 판매관을 개관했다.

이번 판촉행사 및 장흥군 농특산물관 설치는 장흥통합의료병원이 달랏시 분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달랏시 관계자가 장흥김 시식 후 적극적으로 장흥군 농특산물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여 진행됐다.

병원 관계자들의 주선으로 달랏시와 장흥군, 직거래지원센터 등 협의를 거쳐 성사됐다.

달랏시는 베트남 남부 람동성에 위치하며, 인구는 약 20만명이다. 기후는 연중 서늘한 편으로 최근 관광지로 급부상중이다. 장미 등 화훼류가 유명하여 달랏시 꽃 축제가 개최된다.

장흥군에서는 지난 10일 베트남 달랏시와 상호우호협력 MOU를 체결하여, 문화, 관광, 수출 등 전반에 걸쳐 교류를 증진하기로 했다.

달랏시는 장흥군에 지난 통합의학 박람회에 방문했으며, 12월 달랏시 꽃 축제에 장흥군을 초청하여 대표단이 방문했다.

장흥군은 작년부터 달랏시와의 우호 교류를 준비했으며, 올해 3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이번 협약의 결실을 맺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판촉행사 및 수출협약을 통해 장흥군 농특산물 수출 200억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수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해외수출을 통해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연내 미국 LA한인 축제와 전라남도 해외 상설판매장과 연계하여 서유럽(오스트리아) 등지에서 추가 판촉행사를 계획 중이다..

박재원/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취업박람회 개최

광주광역시 서구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구청 야외광장에서 광주 관내 우수기업과 구직자 간의 소통·만남의 장인 '광주 서구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역 우수기업 11개소가 참여해 사무, 콘텐츠, 서비스,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경력 단절여성, 중장년 등 90여 명을 현장 채용할 예정이다.

서구는 박람회 당일 면접부스별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원활한 면접 진행을 돕고, 행사 이후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매칭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구는 당일 직접 참여가 어려운 구인기업 30개소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컨설팅, 이력서 작성요령 및 사진 촬영, 면접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및 취업타로, 캐리커처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 관계자는 "지난해 862명 주민들의 취업 성공을 도와 5개 자치구 중 취업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며 "취업박람회와 일자리센터 운영 등 실질적인 채용 기회 제공을 위해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나주시, '500만 나주관광시대 위원회' 출범... 1박2일 팸투어 진행

관광기획·미식·여행·레저·학예연구 등 관광 성공사례 전문가 싱크탱크 구성

전라남도 나주시가 국내 관광·여행 콘텐츠 분야 선구자들과 500만 나주관광시대 전략 수립에 머리를 맞댄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시정방침인 '융성하는 문화관광' 구현과 올해 신년 비전으로 선포한 500만 나주 관광시대 도래를 목표로 '500만 관광시대 위원회'를 본격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미식, 레저, 농촌, 여행, 관광기획, 학예연구, 미술관광 등 관광 콘텐츠 성공사례와 명량을 두루 갖춘 전문가 13명으로 꾸려졌다.

나주시에서는 강영구 부시장과 이춘형 관광문화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2025년 나주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새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발굴을 위한 의견 수렴, 토론 등 나주 관광 발전 싱크탱크를 담당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영산포 흥어 축제 기간

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소비자 중심의 관광 전략으로 '차별성 없는 기존 축제의 변화', 'MZ세대 저격 음식관광', '곰탕·흥어 등 기존 음식의 다양성 발굴', '중·장년층 연중 경관 조성', '도시민을 위한 농촌관광 등 힐링 상품 개발',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지역 농특산물 관광상품화' 등을 우선 제안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5년 나주방문의 해 추진과 500만 관광시대 달성을 목표로 위원회에 참여해준 국내 최고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며 "나주를 대표하는 축제·미식·발굴, 개별 관광지를 연계한 역사·문화·생태 관광 1번지, 체류형·야간관광 활성화 등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언과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여건이 좋은 유류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과 관광객 재방문과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문자 이벤트를, 볼거리를 넘어 참여와 소비

김영안/기자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형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2023년 제2회 찾아가는 자치분권아카데미'개최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형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제2회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를 5월 12일 14시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자문단 김순은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고,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장이 '강원특별자치도형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홍준현 교수는 인구절벽, 지방소멸 등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관구성의 다양화의 논의 필요성과 관련 정책 추진현황, 기관구성 형태 유형 등에 대해 발표하고,

김병국 이사장은 선진 외국의 기관구성 형태를 소개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기관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정책적 검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내용을 토대로 하여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미 강원도의회 의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이 심도 깊은 토론을 벌인다.

강원도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형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논의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권역별 특별자치단체 연합, 일반자치-교육자치 제도개선 방안 등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치분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 지방분권과 자치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원/기자

태백시, 철암교 인도 설치로 주민숙업사업 해결

태백시는 철암동 주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철암교 인도 설치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3억 2천여 만 원을 투입해 기존 철암교 옆에 길이 32m, 폭 2.0m의 보행자 전용 교량 설치를 진행하려 한다.

이곳은 그동안 교량으로 인해 보도가 단절돼 주민들이 차도를 이용해 다리를 건너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됐던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진행하게 됐다.

해당 공사는 5월 중으로 착공하여 8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시는

이번 인도 설치를 통해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철암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어 안전하게 보도로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철암교 인도 설치를 통해 차량과 사람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향후 인근 주민과 지역 방문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양양군,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 152가구 지원

양양군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가계 에너지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은 가정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때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215,600천 원(도비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총 152가구(태양광 143가구, 지열 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일 1차 사업공고를 통해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원하고, 이후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 공고를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에너지원과 설비용량에 따라 상이하나, 태양광은 최대 119만 원, 지열은 495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자체 지원사업과 별도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도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단독주택은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며, 공동주택은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나 입주자대표이다.

신청 방법은 그린홈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시공을 희망하는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설치 후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확인받아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사업 신청 전에 양양군 경제에너지과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문의 해야하고, 사업승인 시 한국에너지공단에 자부담금을 예치해야 한다.

세부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양양군은 201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시설비를 지원,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에 기여해왔으며, 지난해에는 태양광 200호, 지열 10호로 210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시설비를 지원했다. 최만식/기자

원주시 미리내도서관, 북스타트 20주년 기념 북스타트 주간 운영

미리내도서관은 오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북스타트 20주년을 기념하여 '아기는 강아지를 좋아해요'라는 주제로 '북스타트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책을 읽고 강아지 피규어를 활용한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는 ▲나만의 강아지 테라리움 만들기, 클레이로 책놀이 활동을 해보는 ▲그림책이랑 클레이랑, ▲'딱 하루만 고양이' 원혜영 작가와 함께하는 판화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북스타트 부모교육, ▲작가 강연, 문명에 작가의 '털털한 아롱이', ▲북스타트 도서 원화 전시, ▲책표지 가방 만들기 키트 배부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참여자에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미리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북스타트 2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한 이번 행사가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동기부터 지속적인 독서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동해시, 세계 최대규모(100kW급) 염분차발전 상용화

동해시, 세계 최대규모 100kW급 염분차발전 실증단지 구축 업무협약 체결

동해시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블루 에너지로 손꼽히는 '염분차발전' 상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염분차발전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담수와 인근 해수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초장주기 에너지 저장 발전이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 사업이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12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탄소중립 및 글로벌 해양에너지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심규언 시장을 비롯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중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오진택 드림엔지니어링 대표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해시를 비롯한 3개 기관(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드림엔지니어링)이 해양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관련 협업체 운영과 인재양성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세계 최대규모인 100kW급 염분차발전 실증사업(사업비 약 100억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100% 투자로 추진되며, 2026년부터 상용화를 위한



MW급 발전사업까지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염분차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해안권(강원도, 경상북도 일대)을 관할하는 염분차발전 통합관제·연구센터 구축을 기대할 수 있으며,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 장기간 에너지 저장이 가능한 해양에너지 저장시설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심규언 시장은 "전 세계가 에너지 대전환에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이번 염분차발전 사업은 지자체와 공기업이 미래 청정에너지 발전을 도모하는 선진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에 우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원원/기자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나 주 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세액공제, 담례품

지역생산자 농산물특구대

나주시 기금사업

충남도, 대기업에 “지역인재 우선채용” 요청

김태흠 지사, 현대제철 등 도내 13개 대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

충남도가 도내 대기업에 지역인재 우선 채용과 탄소중립 동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비롯, 도내 13개 대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청 현안을 공유하고, 충남과 대기업 간 상생 협력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연 이날 간담회는 충남 경제상황 공유 및 도청 협조 요청,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간담회 참여 기업은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한화토탈에너지스, KT, 현대자동차, 삼성SDI, SK E&S,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현대엔지니어링, 동국제강, KG스틸 등이다.

간담회에서 도는 먼저 지역인재가 도내에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충남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 규모의 산업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대학의 기술인력 양성 역량도 우수하지만, 지역대 졸업자의 도내 취업률은 20.2%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충남형 계약학과

충남형 디지털 아카데미 등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충남형 계약학과는 기업 채용을 조건으로 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정부 공모를 통하거나 도 자체적으로 2025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 업종은 충남 주력 산업으로 전후방 인력 수요가 높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이다.

탄소중립 동참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경제 실현 고탄소산업 탄소 순환 공정,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센터 구축, 수소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충남형 RE100 추진 등 5건을 꺼내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탄소중립경제 실현 고탄소산업 탄소 순환 공정은 연간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7억 100만 톤 중 충남이 1억 5500만 톤(22%)으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 따라 도입 추진 중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저탄소 공정 전환 신축에 기술 개발 및 도입, 저탄소 공정 전환용 신소재 기술 개발 및 도입,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융합 시설 비 제조 기술 개발 및 도입 등이다.

도는 사업 기획 후 정부에 역제안 할 계획으로, 각 기업에 사업 기획 자문과 정부 역제안 참여 등을 요청했다.

탄소 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탄산화물) 상품화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정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탈황석고로 친환경 시멘트 등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작업으로, 사업화로 연결되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대기오염물질과 폐기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포집활용 실증센터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화학·제철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재활용을 통한 순환고리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46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충남의 주력 산업은 지역 수출의 43%를 차지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동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 TYM(舊 국제종합기계) 가정의 달 환경 정화활동 진행

충북 옥천군과 옥천군 대표기업인 TYM은 12일 군북면 이백리 일원 폐도로와 주변 하천 등에서 ‘가정의 달 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옥천군 환경과와 TYM 그룹 직원 약 40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군북면 이백리 폐도로내 방치 폐기물과 영농폐기물(페비닐, 농약빈병, 비료포대 등) 처리, 군북면 행정복지센터 앞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했다.

TYM 옥천공장 김형식 이사는 “가

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환경보전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천기석 환경과장은 “민·관이 협력한 환경 정화활동은 지역과 기업에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깨끗하고 쾌적한 행복드림 옥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K-와인 선두주자 영동와인, 필리핀 첫수출길 올라!

K-와인의 선두주자, 충북 영동군의 명품와인이 처음으로 필리핀 수출길에 올랐다.

영동군은 지난 11일 영동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영동와인의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영철 영동군수 및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 수출길에 오르는 와이너리농가인 금융농산 전인기 대표, 컨추리농원 김덕현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출길에 오르는 영동와인은 총 5,600병(켤)으로, 금융농산의 샤인머스켓 화이트와 샤인머스켓 스파클링(켤), 컨추리농원의 캠벨 드라이의 총 3종이 선정됐다.

이들 와인은 5월 11일 출발하여 와인은 20일 후인 6월 초에 필리핀에 도착할 예정이다.

수출된 와인은 필리핀 내수용이 아닌 COD그룹의 VIP상품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정근/기자

최고품질의 맛과 향으로 필리핀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사인 필리핀 COD(City Of Dreams Manila) 그룹은 이후 추가 수입을 위해 오는 5월 26일경 영동군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영동와인 오픈마켓’ 행사에 맞춰 영동군을 방문할 계획이다.

금융농산 와이너리 전인기 대표는 “와인은 아직도 수입와인이라는 의식이 팽배한데, 국내 와이너리도 수출할 만큼 기술력이 발전했다”면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와인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영동와인은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 부단히 학습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필리핀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Go Rving 락 페스티벌 in 충주 개최

충주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목계술밭 캠핑장에서 전국캠핑족 400여 가족 총 2,000여 명이 참여하는 ‘Go Rving 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가 2016년도부터 목계술밭 인근에서 진행하던 이날 행사는 목계술밭 캠핑장 개장에 맞춰 4년여 만에 재개됐다.

특히 올해는 중원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준비해 캠핑족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에는 첫날 3도(경기, 충북, 강원) 크리에이티브 마켓, 장터, 캠핑카 야외 박람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 캠페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유익함을 제공한다.

둘째 날에는 충주 감성버스 투어를 통한 관내 체험관광과 버스킹 공연, 충주실화 듣는 텐트, 마술쇼, 초대가수(유종완 밴드, 노브레인, 레이저본)와 사물놀이 물개의 공연을 통해 캠핑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오는 6월에 개최되는 다이브 페스티벌 등 충주시 관광홍보, 지역 농산물 판매, 저소득 청소년 캠핑체험 교실 운영 등 지역과 상생하는 캠핑문화 조성에도 힘을 실었다.

페스티벌 행사의 경우 충주시민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시는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목계나루 강변 인근에 마련된 임시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목계술밭캠핑장 개장에 맞추어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충주시가 ‘캠핑도시 충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한다”며 “충주를 방문하시는 전국 캠퍼들이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느끼고, 힐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계술밭 캠핑장은 64,000㎡ 부지에 168개의 캠핑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야영장으로 지난 4월 1일 정식 개장했다.

김원호/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인재 양성 도시로 우뚝 설 것"

아산시·충남도·한국폴리텍, 반도체 맞춤형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산시와 충청남도, 한국폴리텍대학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도체 업계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박경귀 아산시장과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임춘건 한국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11일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에서 만나 ‘폴리텍반도체대학(SEMICS)’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아산시와 충남도, 한국폴리텍은 반도체 인재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맞춤형 교육 훈련 제공 등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폴리텍은 반도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에 적극 협력하고, 아산시와 충남도는 반도체대학(SEMICS) 설립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와 도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은 폴리텍 아산캠퍼스를 ‘폴리텍반도체대학’으로 전환하고, 2024년부터 반도체 공정을 신설해 신입생 50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5년에는 반도체 설계과와 반도체 소자과, 2026년에는 반도체 장비과를 신설하고 매년 신입생도 증원할 계획이다.

또, 캠퍼스 내에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최첨단 교육 시설인 ‘파운드리 통합실습관’을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로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반도체 업계 실적 악화로 우수 인재 양성에 투자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시는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 거점 사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함께 나누고 고민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가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의 거점기지가 될 수 있도록, 아산시도 가능한 여러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한민국 대표 반도체 수출 도시인 아

김 지사는 이어 “지역에서 키운 인재를 지역 기업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충남형 계약학과 추진에 동참하고, 충남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업들이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날 이와 함께 2023 대백제전 참여 및 홍보, 도내 농·수산물 사용 및 소비 촉진, 장애인체육 선수가 고용 활성화, 충남 전년 인턴 지원사업 참여,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 부품산업 상생 협력, 사회적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가족친화인증 신청 참여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기업들은 현대대중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HD현대오일뱅크), 아산모터스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조속 처리(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진입도로 확포장(〃), 보령 청정 수소 클러스터 조성 및 수소 생태계 구현 관심·협조(SK E&S), 플라스틱 재활용 수소 생산 인허가 협조(현대엔지니어링) 등을 건의했다.

도는 각 기업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민·관·학이 함께한 음성읍 경로孝 대잔치

음성읍 새마을지도자·부녀회가 주최한 음성읍 경로孝 대잔치가 12일 음성읍 체육관에서 4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경로잔치는 강동대학교와 극동대학교 학생들, 아이코리아 음성지회, 대한적십자사 음성지구협의회 음성단위 봉사회와 신생 봉사단체인 시원, 음성읍 자율방재단 등 총 100여명이 함께 힘을 합쳐 진행했다.

음성읍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남녀회장이 권오선·이정원 회장은 “어르신들께서 저희 새마을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차린 음식과 위문공연 및 체험 부스 등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음성읍분회 장양원 회장은 “오늘 경로잔치가 있기까지 고생해 주신 새마을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경로잔치를 위해 감곡에서 음성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준 강동대학교, 극동대학교 학생들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경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재욱 음성읍장은 “많은 분들의 참여로 젊은 세대의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 전통문화 계승의 좋은 본보기가 됐길 바라며, 민·관·학·기업이 함께 참여한 뜻깊은 행사를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주시 조길형 시장, 공직사회 ‘주인의식’이 안전의 지름길!

조길형 충주시장이 시민 이용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인의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시장은 11일 현안점검회의에서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준공이 예정된 시민 이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있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며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문제를 찾아내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다년에 걸쳐 추진해 온 여러 시설이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건축물의 마감까지 완벽하고 깔끔하게 이루어지도록 막바지까지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기존 시설들도 운영 실태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시민들이 많이 찾고 이용하는지, 좋아하는 부분과 불편해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곳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시민들이 존재 자체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라며 “도로 안내판 등 적절한 정보 전달을 통해 지역 곳곳의 시설들이 알차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어울림시장과 관련해 “안전의 원칙과 상인과의 소통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한다”라며 “각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간에 갈등이나 실수가 없도록 협력의 자세를 늘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행정의 본연인 법과 원칙과 따라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박상돈 천안시장, 기재부에 ‘국가산단 산업용지 확보’ 건의

박상돈 천안시장이 12일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단지 내 7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최상대 제2차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 일원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부지에 조성될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단지’는 천안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지난 3월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으며, 현재 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예

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천안시는 국가산단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70.4%로 배치해 대기업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배후 뉴타운에 주거와 상업, 연구 등 지원시설 설치로 천안 북부권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기재부에 제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가산단단지 내 대기업과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70% 이상의 산업시설용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대규모 산업시설용지의 필요성을 거듭 요청했다.

박상돈 시장은 “기재부가 국가산단단지 조성 관련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산업 신성장 거점이 될 국가산단이 오랜 시간 천안시민들이 염원해온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용인농협, 원로조합원 경로행사 물품지원』



용인농협(조합장 김상용)은 지난 5월 8일에 대한노인회 처인구 이인영 지회장과 관내 164개 경로당의 각 지역 분회장인 중앙동 정재룡 분회장, 역북동 장병소 분회장, 삼가동 김준식 분회장, 유림동 이상근 부분회장, 동부동 유중희 분회장, 양지면 이교춘 분회장을 모시고 경로행사를 위해 본점 회의장에서 5천만원 상당의 물품지원 전달식을 하였다.

김상용 조합장은 “농촌, 농업인 그리고 조합원과 함께해 온 용인농협은 지역사회와 나누고, 농업·농촌으로 환원하고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원로조합원들에게 ‘사랑의 효 나눔’을 위해 각 경로당에 30만원씩 전체 5천만원의 물품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노인회 처인구 이인영 지회장은 “농업·농촌의 녹록지 않은

현실적 여건과 어려움이 존재해 있고 원로조합원들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지금, 용인농협으로부터 물품지원을 받게 되어 고마움을 표하고 회원인 조합원들을 위해 좋은 곳에 사용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경로행사 물품지원이 해마다 이어지기를 바라며 기념사진 촬영도 하였다.

조혜영/기자

통영신애원 그린나래 원장 강철, 대통령 표창 수상

2023년도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정책 유공자로 수상해

지난 5월 11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통영신애원 그린나래의 강철 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강철 원장이 2000년 2월, 신애원(통영신애원 그린나래의 전신)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한 이래 24년째 시설 생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결같이 힘써 온 결실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통영신애원 그린나래는 그 이름이 갖는 의미와 같이 여성 가정이 어린 자녀와 함께 경제적, 정서적 어려운 시기를 안전하게 지내고 움츠렸던 날개를 펼쳐 사회로 나아가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통영시 또한 복지시설 생활자는 물론 종사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강철 원장은 “통영신애원 그린나래는 앞으로도 더욱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세로 시설 생활자 가족 모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통영신애원 그린나래는 1973년 개소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이라면 입주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또는 전화 상담 가능하다.

이용준/기자



충북농기원 엄현주 박사, 발명의 날 수상 영예

제58회 발명의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발명진흥회 주관 충북농업기술원은 12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엄현주 박사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제58회 발명의 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5월 19일로 지정되어 있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범국민적인 발명 분위기를 확산하고 발명가의 사기 북돋움을 목적으로 한다. 이 행사를 통해 우수 발명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한다. 이번에 수상한 도 농업기술원 엄



현주 박사는 환경식품과 식품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27건의 특허기술을 개발했다. 주로 충북지역 특화작목인 대추, 도라지, 잔대, 병풀 등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공기술과 발효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유용미생물 등을 개발하여 농가와 농식품 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고정화/기자

이를 통해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전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아낌없는 기술이전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개발한 기술의 과학적 근거 제시를 위해 22건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사 본분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도 농업기술원 엄현주 팀장은 “이번 발명의 날에 수상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농가형 산업체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시 서운면 주민자치위원회, 경기도 주민자치 제안사업 2차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안성시 서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2차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2차 경연대회는 1차심사에서 선정된 30개 시군별 1위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장 발표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하는 대회로, 서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성시 대표로 참가해 경연을 펼쳤다.

안성시는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공모 1차 심사에서 서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총 7곳의 주민자치사업이 선정됐으며, 1곳당 400만원에서 1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서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장려상 수상으로 사업비 1,3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서운면 안성맞춤 포도축제와 연계한 문화체험 행사추진을 위하여 '서포터주(서운면 포도축제의 터를 닦는 주민자치 위원단)'를 구성해 향후 9월 서운면 포도축제에서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등



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항자 서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장려상 수상을 계기로 2023년 서운면 안성맞춤 포도축제는 주민들

이 서로 응원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시현/기자

진안군, 부부의 날 맞아 모범부부 표창패 수여

진안군은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부부의 날을 기념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 부부를 선정해 시상했다.

모범 부부상은 읍·면장 추천과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12쌍의 부부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주요 공적으로는 ▲활발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한 부부 ▲사랑과 신뢰로 배우자의 병환을 부부애로 극복한 부

부 ▲다문화 가정으로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름을 이해하여 평등한 가족문화에 기여한 부부 등이다. 이날 표창자는 ▲진안을 광무영, 반숙정 ▲진안을 김철환, 서경애 ▲용담면 강화석, 김장순 ▲안천면 최익성, 팜티비엣 ▲동향면 강영석, 김옥분 ▲상전면 이춘식, 문금자 ▲백운면 양남용, 이연순 ▲성수면 오영근, 최성실 ▲마령면 김

문형, 송봉순 ▲부귀면 엄준섭, 백승례 ▲정천면 윤동환, 임종예 ▲추천면 강병욱, 아일리아파마 총 12쌍의 부부가 수상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5월 21일은 돌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로 배우자에게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과 긍정적인 결혼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 함께해요 행복출산, 같이해요 든든육아 ”

우리를 위한 선택! 선택을 돕는 지원! 경상북도가 행복을 키워줍니다

- | | | |
|--|---|---|
| <p>결혼·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1인 1,060만원) ·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춘남녀 만남지원 ·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 <p>임신·출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소득 불문)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 다자녀가구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 <p>돌봄·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전 계층(0~5세) 무상보육 · 국공립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초등학교 마을돌봄터 운영 ·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부담 경감(90~100%) |
|--|---|---|



대전시,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소상공인 감사 대축제 개최

5월13일부터 14일까지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려

대전시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2023년 소상공인 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전지역 소상공인의 공예품, 제과류 등 다양한 품목을 제조하는 50여 개 업체가 참여하며, 우수상품 홍보를 위한 전시·홍보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행사기간 동안 축하공연, 소상공인 가요제, 롤렛이벤트, 역기들기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현장에서 신청, 참여할 수 있다.

특히, 13일 15시에는 '2023 동행 축제' 일환으로 지역 우수상품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특별방송이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중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감사대축제를 통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분들의 우수한 제품이 시민들께 널리 알려져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백중원도 힘 보탠다

도·예산군·더본코리아, 그린바이오 산업생태계 발전 업무협약



충남 예산시장을 전국에 알린 백중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예산군을 그린바이오 산업집적지로 육성하는데 힘을 보태고 나섰다.

도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최재구 군수, 백중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벤처 캠퍼스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와 예산군, 더본코리아는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사업 협력 △그린바이오 벤처 창업 지원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학술대회 공동개최 △예산 늘해랑 프로젝트에 협력한다.

앞서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로 예산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백 대표는 농식품부 주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화 지원부터 투자유치, 성장까지 가는 로드맵을 설계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물품구입 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구매의향서에도 서명하는 등 확실한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벤처 캠퍼스 내 입주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 수립 부문까지 도움을 준 것으로, 도는 보령제약 도미앙스 등 예산군 소재 기업에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산업, 6차산업단지를 삼각체계에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기업들의 제품개발, 실증,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기관"이라며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꼭 유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백 대표와 더본 코리아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연구·제작용 장비·공간,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

는 벤처 육성 전문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천연물 소재 콘셉트로 약초생산 전용 첨단농장(생산), 공공바이오파운드리(연구·시험생산)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2026년까지 231억 원을 투입해 예산군 삼교읍 일원에 조성 예정인 그린바이오 농생명 산업집적지(165만㎡) 내에 건물 1개동, 주차장, 휴게시설 등 총 1만 1,198㎡(약 3,387평) 규모로 벤처 캠퍼스를 유치하게 된다.

그린바이오 농생명 산업집적지는 최근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도전장을 냈으나 농지 잠식 우려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곳으로, 이 부지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394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 △그린바이오 지원 단지 △6차 산업화단지를 조성한다.

이들 사업을 연계할 경우 4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 완성될 전망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3일 예산군, 충남농업기술원, 충남테크노파크와의 벤처 캠퍼스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운영단으로 충남테크노파크를 선정해 바 있다.

이어 24일에는 공주대 등 도내 18개 대학·기업·기관과도 업무협약을 체결,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에 힘을 합치기로 하는 등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 대표는 "미래 먹거리 대안으로 떠오른 그린바이오 사업에 평소 관심이 많았다"며 "협력 파트너로서 식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사업, 더본코리아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 및 광고활동 등 도움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충남과 예산의 손을 기꺼이 잡아준 백 대표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 금처럼 충남과 예산의 미래에 늘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최정근기자

인공지능(AI)·미래차 협력 강화 광주광역시-경기도, 공동번영 이룬다

강기정 시장-김동연 지사, 12일 상생발전 협약 체결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양 시도 간 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경기도가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시·도는 광주시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를 활용한 창업·기술지원·인재양성 등 협력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인공지능산업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시·도는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번영을 이어가기 위해 8개항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산

업 생태계 활성화와 선도 협력 ▲청년·청소년 교류프로그램 공동 추진 ▲미래차 생태계 구축 협력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공동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운영 ▲K-뷰티페스티벌 개최 협력·교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단호 대처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이다.

특히 양 시·도는 '판교 중심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 중인 광주 미래산업의 핵심 동력인 인공지능(AI)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인력·

기업의 교류를 위해 광주에서 열리는 '글로벌 AI컨퍼런스 및 전시회'에 공동 참여하고,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와 경기도의 인공지능 조성사업 연계한 인재양성, 데이터 공동활용, 창업지원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해 간다는 구상이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완성차 공장 2곳을 보유한 광주와 경기도의 미래먹거리 3대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인 미래차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한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차 진입 지원 플랫폼' 사업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 시험서비스, 기술지원, 기업 컨설팅, 부품사 등 기업 지원 관련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주의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를 활용한 공동 협력방안, 미래차 전환에 따른 소부장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청년과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시와 경기도의 청년캠퍼·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교류 및 청소년 프로그램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인재양성에도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 공동 개발·운영에 협력해나가고, K-뷰티페스티벌 개최 협력과 교류를 통해 뷰티산업 활성화

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양 시·도 공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상호 정보 공유, 캠페인 전개 등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와 경기도는 5·18민주화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한다. 협약식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또 강 시장과 김 지사는 협약식 전 '고향사랑 기부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인공지능(AI)과 첨단도발리테에 특화된 도시인 광주시와 이번 협약을 통해 함께 손맞잡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한 청년교류 등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일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중심도시와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경기도와 상생협력을 맺게 돼 기쁘다"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공동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삼성전자, 업계 최초 'CXL 2.0 D램' 개발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CXL 2.0을 지원하는 128GB CXL D램을 개발했다.

* CXL(Compute Express Link,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고성능 서버 시스템에서 CPU와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 D램, 저장장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인터페이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CXL 1.1 기반 CXL D램을 개발한 데 이어, 1년 만에 CXL 2.0을 지원하는 128GB D램을 개발해 차세대 메모리의 상용화 시대를 앞당겼다.

이번 제품은 PCIe 5.0(x 8레인)을 지원하며, 최대 35GB/s의 대역폭을 제공한다.

* PCIe(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 Express): 기존 SATA 전송 속도의 성능 한계를 극복한 고속 인터페이스 규격

삼성전자는 'CXL 2.0 D램'을 연내 양산할 계획이며, 차세대 컴퓨팅 시장 수요에 따라 다양한 용량의 제품도 적기에 선보여 CXL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CXL D램은 메인 D램과 공존하면서 대역폭과 용량을 확장할 수 있어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고속의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차세대 컴퓨팅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CXL 2.0 D램'은 업계 최초로 '메모리 풀링(Pooling)' 기능을 지원한다.

'메모리 풀링(Pooling)'은 서버 플랫폼에서 여러 개의 CXL 메모리를 묶어 풀(Pool)을 만들고, 여러 호스트가 풀(Pool)에서 메모리를 필요한 만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CXL 메모리의 전 용량을 유류 영역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고객이 이 기술을 데이터센터에 적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가능해 서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절감한 운영비를 서버의 메모리에 재투자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신사업기



획팀장 최장석 상무는 "삼성전자는 CXL 컨소시엄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 BoD) 멤버로서 CXL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서버/칩셋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CXL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의 기술 이니셔티브 부문 책임자인 짐 파파스(Jim Pappas)는 "CXL 생태계 확대를 위해 삼성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 업계 전반에 걸쳐 혁신

적인 CXL 제품의 성장과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몬타지 테크놀로지(Montage Technology) 스테판 타이(Stephen Tai) 사장은 "몬타지는 CXL 2.0을 지원하는 컨트롤러를 업계 최초로 양산할 계획"이라며, "CXL 기술 발전과 생태계 확장을 위해 삼성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강원도, 2027년까지 초광역권 협력사업에 25조 투입

"강원도를 넘어선 더 큰 강원도"

강원도는 초광역 협력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타 시·도들과 협력하는 초광역권 발전 51개 사업에 25조원을 투자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5월 12일 10:00 도청 신관2층 소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간, 강원도는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여러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광역시·도가 없어서 지역발전 추진에 핸디캡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22년 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에 따라, 금년부터는 5년 단위로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추진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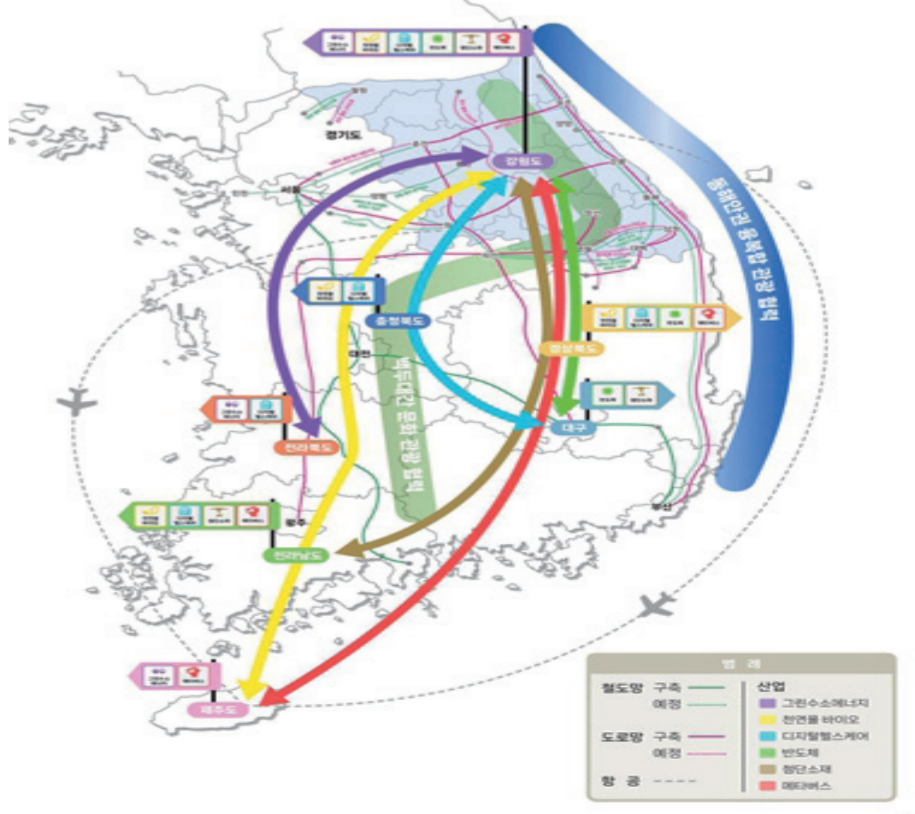
초광역권 협력 사업을 통해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강원도를 넘어선 더 큰 강원도'를 구현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와 경제력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야별로 발굴한 사업은 산업 분야에 수소에너지 경제권 실현 등 34개 사업 1.6조 원을 9개 광역지자체와, 관광 분야는 백두대간권 인프라 구축 등 7개 사업 2.3조 원을 7개 지자체와, 공간 분야에는 도로 철도 연장 등 12개 사업 21조 원을 3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여 5년간 51개 사업에 25조원의 투자를 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다른 광역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강원도 미래산업 육성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모두 최종계획에 반영되고, 국비까지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경북교육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위해 1,000억 원 투입!

- 조리실 환기시설 및 급식시설 현대화에 추경예산 278억 원 증액 편성
- 임종식 교육감, "노후 학교 급식시설을 개선, 건강한 급식되도록 노력다해"

경북교육청은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본예산 729억 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278억 원(38% 증액), 총 1,007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 180억 원(160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및 증개축비 735억 원(93교) ▲급식종사자 휴게실 개선 및 노후급식시설개선 39억 원(220교) △HACCP 기구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52억 원(301교) 등이다.

특히 급식실 조리용(음식 조리사 나오는 유독 증기) 발생에 따른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 기존 17억 원에서 163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환기설비개선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

급식 시설의 노후 정도, 3식 학교, 급식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등을 우선

순위로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해 급식종사자들의 호흡기 건강 보호 및 폐암 예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급식소 리모델링 18교 184억, 내진보강 부적정 및 학생 수 증가 등에 따른 급식소 증개축 68교 532억 원, 신설학교 및 증개축교 급식기구비 7교 19억 원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소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91억 원을 지원하며, 특히 조리기구를 가스식에서 전기식으로 교체하고, 조리방식 개선을 위한 동영상 및 레시피를 적극 홍보해 급식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및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안전과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을 위해 환기시설 개선, 급식기구 현대화 등 노후 학교 급식시설을 개선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기후 위기 대응하는 청소년 환경 리더 키운다

13일 부산청소년환경위원회 발대식 열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3일 오전 10시 동구 부산과학체험관에서 중·고등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환경 리더 양성을 위한 '2023 부산청소년 환경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3년째 운영하는 '부산청소년 환경위원회'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 활동을 펼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설 청소년 환경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날 발대식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환경정책분과·홍보분과 등 분과별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부산교육청은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멘토교사단을 운영한다. 또, 부산기후·환경 네트워크와 함께 학생들의 캠페인 활동, 환경정책 제안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중환 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장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청소년 중심의 환경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중진/기자

경북교육청, 교육부 '2023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선정

디지털 온(溫)-ON-온) 교육혁신으로 10만 디지털 학생 리더 육성

경북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부의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공모 사업은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부 사업으로 ▲에듀테크 활용 기반 구축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주도할 교육인 양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해 선도모델 창출과 성과 공유에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2027년까지 10만 디지털 학생 리더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을 실천하는 온(溫)학교 40교를 시범 운영하며, 학생 맞춤형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된 온교실을 구현하고 디지털 기반 수업을 실천하는 온(ON)교사 육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 융합 미래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교육 공동체가 연계하는 디지털 온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북형 디지털 수업 혁신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전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 전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장르, 문학과 사회를 횡단하다' 인문학 강좌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관장 김호섭)은 6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19시 ~ 21시, 총 4회에 걸쳐 '장르, 문학과 사회를 횡단하다'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 릴레이' 사업의 일환이다. 릴레이 강좌는 8개 도서관이 10월까지 월별로 공통의 주제 아래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

2023년의 공통 주제는 '문학'으로 계양도서관은 6월 한 달 동안 '장르, 문학과 사회를 횡단하다' 강좌를 진행한다. 대표적인 장르 네 종인 판타지, 로맨스, 무협, SF 각 장르의 개념과 개별 장르가 한국 사회에서 사용됐던 역사와 향후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 강좌는 회차마다 각 장르의 작가 또는 전문 연구자인 이용희(판타지), 손진원(로맨스), 이주영(무협), 이지용(SF) 강사가 참여해 한국 장르 문학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장르, 문학과 사회를 횡단하다' 강좌 수강은 5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계양도서관 홈페이지(도서관서비스) [독서문화행사] [온라인신청]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계양도서관 관계자는 "웹소설 등 장르적 성격을 띤 웹콘텐츠 문화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요즘 장르문학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경기도교육청, 돌봄 대기 해소와 지역 특색 살린 돌봄 모델 만들기 위해 지자체 협력 강화

이경희 제1부교육감, 성남 다함께돌봄센터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경기도교육청이 돌봄 대기 해소와 지역 특색을 살린 돌봄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돌봄 수용기대에 부응하고 돌봄 대기 해소를 위해 지자체 돌봄서비스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책임돌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12일 오후 성남 다함께돌봄센터 '고동마을 어린이 식당(센터장 양미경)'을 방문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고동마을 어린이 식당'은 센터장 1명, 돌봄교사 3명이 저녁 8시까지 학생 40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지자체 돌봄 운영 중 학부모가 만족하는 지점 ▲프로그램 운영 방안 ▲학교돌봄과 지자체 돌봄 연계 시 고려할 점 ▲돌봄 시간의 확대 ▲돌봄 시 학생 급식 제공 방안 등 지역사회 연계 돌봄의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장기적 방향성을 갖고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며 초등 책임돌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모두 만족하는 돌봄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돌봄 대기 해소를 위해 학교 외에 지역과 연계한 지자체 협력 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마을기관 위탁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전남교육청, '공존교실'로 공부하는 학교 붐 일으킨다

전라남도교육청이 공부하는 학교 실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공존교실'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부하고 존중받는 교실수업'으로實땀은 교육이라는 뜻의 공존교실은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가운데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교육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도내 86개 중학교에 94명의 공존교실 지원강사가 배치돼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돕고, 교과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5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순천만생태문화

교육원과 창의융합교육원에서 공존교실 지원강사, 교과지도교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장학사 184명을 대상으로 공존교실 지원사업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존교실 지원강사와 함께하는 협력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공존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현장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존교실 운영학교 교사들은 학교 실정에 맞는 강사 채용을 위해 전일제 강사 또는 시간강사를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지원청에서 강사 채용 업무를 대신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며, 공존교실이 내실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은 "질문, 탄성, 웃음의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공존교실의 안착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세종시교육청,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초청 강연 '미래에, 인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1일에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융합교육체험센터와 함께하는 미래교육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미래에, 인간은'을 주제로 학부모와 함께 인문학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사회를 탐구하고 교육에 대해 고민해보기 위해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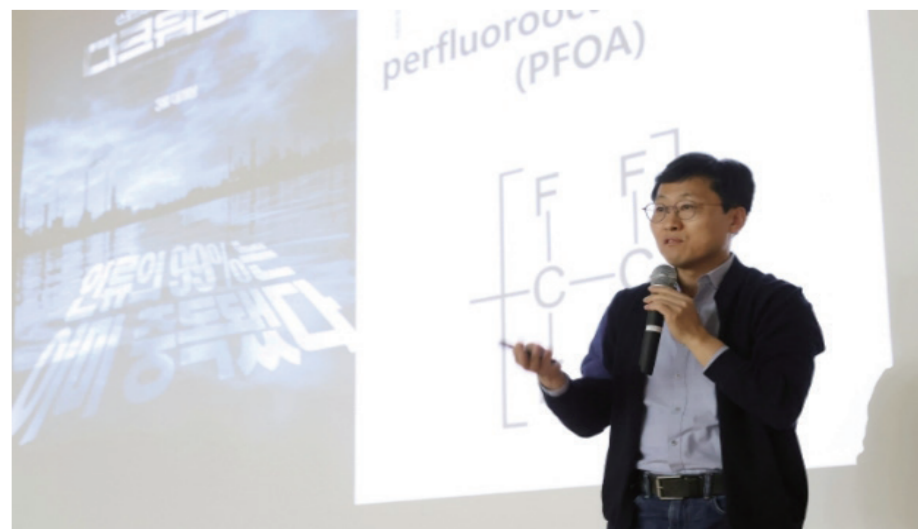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를 초청하여 진행됐으며, 신청 당일 마감되어 대강당 300여 석을 가득 채운 학부모들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날 특강에서 김상욱 교수는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이야기

하며,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닌 만들어 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토크콘서트 시간을 통해 미래 교육의 방향과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교진 교육감은 "미래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고민과 성찰이다"라며,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인문학적 관점과 예술적 감수성으로 과학기술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2023 6월 6일 **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 릴레이**

장르, 문학과 사회를 횡단하다

운영일정 2023.6.9.-6.30.(총 4회)
매주 금요일 19시-21시

주요내용 장르문학의 대표적 4종(판타지, 로맨스, 무협, SF)의 개념과 역사, 한국 사회에서의 의미 등을 조명

모집안내
- 대상: 청소년 이상 성년 50명
- 신청기간: 2023.5.10.(수) 오전 10시 ~ 선착순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gyeyanglib.go.kr) 또는 전화(031-4478-4478) * 문의: 독서문화과 540-4478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 학생·시민기자단 출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 학생·시민기자단 111명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학생·시민기자단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기자 63명, 시민기자 48명 등 총 111명이 활동한다.

이들은 11월 말까지 인천교육 관련 기사를 작성하고, 언론보도 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6월 15일까지 인천광역시 경찰청이 인천시교육청 학생·시민기자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홍보 콘텐츠 경진대회'에 참여한다.

경진대회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실태와 예방대책 ▶신종 학교폭력의 유형과 예방대책을 주제로 르포형식의 기획기사, 언론기고, 사진·영상 작품을 공모하는 내용이다.

인천시경찰청은 6월 26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3명을 선발해 인천경찰청장 상장과 부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시민기자단은 '교육청-학교-시민'의 메신저가 되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학교의 생생한 목소리와 시민의 삶속 진솔한 목소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제주시, 성수기 대비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 실시

제주시는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하계휴가 등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인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관광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로, 불법영업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심 관광진흥과장은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관광객 등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관기 기자



충북도, 나들이철인 봄을 맞아 불법 숙박영업 합동 특별 단속 실시

5. 15.~7. 14. 충북도, 시군, 경찰 등 합동단속반 구성 특별단속

충북도는 나들이철인 봄을 맞이하여 숙박시설 이용객 보호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 영업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및 시·군의 일반·생활숙박, 외국인도시민박, 농어촌민박 관련 주관 부서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운영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신고 업소)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

는 업소, (편법운영)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운영 의심업소, (행정처분 이력) 각 소관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최근(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기타)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봄나들이로 우리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동 단속을 철저히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 기자

완도해경, 드론 이용 海 법규위반 선박 단속 강화

마량파출소,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선박 단속 강화

완도해양경찰서마량파출소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마량항~고금도~조약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을 위해 자체 드론을 활용한 법규위반 선박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드론은 함정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고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채증도 신속하고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은 ▲무허가 조업 ▲영양구역 위반 ▲음주운항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과승 ▲그물고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갯지렁이를 잡기 위해 불법 어구를 제작·판매한 자 및 불법 어구를 적재하여 조업하는 선박 등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마량파출소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자체드론을 이용한 단속 건수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1건으로 나타났다.

마량파출소장 서상주는 "드론이 지닌 장점을 활용하여 선박 또는 사람의 접근이 어렵거나 위험한 업무영역으로 드론 적용을 적극 확대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함께 해양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욱 기자

광주광역시,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특별단속

무신고 미용업소·무면허 미용 등 불법영업 22곳 적발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지역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한 결과, 무신고 미용업소·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무면허 미용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되고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시민의 미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 미용업종 외 추가 미용업종을 변경신고 없이 영업했으며, D업소는 의사 처방으로 구입 가능한 전문의약품 불법으로 구입해 손님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미이행 3건 ▲전문약품 사용목적 취득 1건 등 총 22개소이다.

위반 내용은 A업소 등 8개소는 손톱·발톱 미용 또는 피부관리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B업소 등 10개소는 니들펜, 문신염료, 마취크림 등의 의료기기와 의약품 이용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를 했다. C업소 등 3개소는 영업 신고한 미용업종 외 추가 미용업종을 변경신고 없이 영업했으며, D업소는 의사 처방으로 구입 가능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입해 손님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시는 적발업소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형사처분 대상업소는 광주시가 직접 대표자 등을 조사한 후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송영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는 시술 후 피부염증, 통증,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전문의료인이 시술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신고 업소 및 유사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미용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각 구청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병수 기자

관악구,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집중단속

룸카페 및 청소년 유해업소 등 관악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참여 민·관합동 점검

관악구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5월부터 룸카페, 마약음료 등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관악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관내 룸카페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 연 5회 실시하던 점검을 올해는 연 7회로 확대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출입·고용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활동 및 관할 경찰서에 신고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24시간 스마트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해 청소년 등·하고 시간대에 학교 주변을 집중관제하고 청소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청소년에게 접근해 음료를 건네는 행위, 이상행동 배회자 등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 및 출동 지원을 요청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구는 마약 의심 음료를



섭취 또는 습득한 청소년에게 진단키트를 제공해 신속한 검사를 지원하고, 피해청소년 발생 시 정서 안정 및 회복을 돕기 위한 건강·의료 등 전문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초·중·고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과 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

도 실시해 유해환경에 대한 위험성과 신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지역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성원 기자

부천시,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 나서...24대 적발

부천시가 지난 10~11일 유관기관과 함께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에 나섰다.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등과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로변과 상가 밀집지역(전화국사거리, 역곡고가사거리, 성곡사거리)을 중심으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발생 소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정돈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경음기 추가 부착 ▲불법 튜닝 ▲교통법규 위반(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등으로, 단속결과 위반이 확인된 이륜자동차

24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환경과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천시는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로변과 상가 밀집지역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민 기자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시, 침수예측~차단~대피 촘촘한 수해안전망 구축... '2023 풍수해 안전대책'

지난해 기록적 폭우로 방재성능목표 95mm → 100~110mm 상향해 풍수해 대책 수립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일상화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2023년 풍수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8월 서울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가 다시 와도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수해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작년 여름 서울에는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졌다. 12.8.8~9일 동작구에 내린 시간당 141.5mm는 500년 이상 강우 빈도로 15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록적인 폭우였다. 당시 폭우로 인해 신림동 반지하주택 재해약자 등 안타까운 사망사고와 68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풍수해 안전대책의 핵심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피해가 없는 안전한 서울을 구축하는 데 있다. 다각적 정보에 기반한 과학적 침수 예측부터 주택·지하철 등 맞춤형 방재시설 설치로 침수를 차단, 긴급상황 시 재해약자의 대피까지 촘촘한 수해 안전망을 가동해 시민안전을 확보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에 따라 서울 전역의 방재성능목표를 시간당 95mm에서 시간당 100~110mm로 전격 상향, 올해부터 이 기준에 맞춰 풍수해 대책을 수립했다. 강남역·도림천·광화문 일대에 추진 중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고,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방재설비는 100~110mm 강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개선된다. 재해지도 역시 이 기준에 따라 침수예상도 업데이트를 완료했다.

올해부터는 이상 폭우로 침수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이를 선제적으로 경고해 시민 스스로 사전에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침수 예·경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를 대피시키는 '동행파트너'를 즉각 가동해 인명피해를 막는다. 또한, 강남역·대치역·이수역사거리 3곳에서는 '침수 취약도로 사전통제' 서비스도 처음 시행한다. 경찰과 협업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카카오·티맵 등 내비게이션으로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의 침수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 예측하기 위해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강우량과 지형, 하수관거, 저류조 등 다각적인 정보를 활용해 침수지역과 규모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주거지 침수 발생 가능성과 도림천·우이천 하천 범람 위험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에 침수지역 예측으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에 방재시설 점검도 완료해 풍수해 대비태세를 확립했다. 시, 자치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빗물 펌프장, 저류조, 수문, 공사장 등 총 8,223여 개 주요 방재시설 및 현장을 집중 점검했고, 이상이 있는 시설의 경우 정비를 마쳤다.

아울러 시설별 맞춤형 방재시설을 설치해 침수를 차단한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빗물이 지하철 역사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서울지하철 지하역



사에 물막이판 설치도 우기 전에 완료한다. 침수우려지역에는 우기 전까지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6천여 개를 우선 설치하고, 올해 총 1만 개까지 확대 설치한다.

한편, 예상치 못한 침수 위험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설치해 대응할 수 있는 이동식·휴대용 임시물막이판도 시범 운용한다. 작년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5개 자치구(관악·동작·영등포·서초·강남구)에서 운용한 후 효과를 검증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여름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인 '2023년 풍수해 안전대책'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후 16시 20분 서울시청 기피상황실에서 '2023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를 주재해 각 분야별 풍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안전대책 보고회는 각 부서별로 준비한 여름철 풍수해 대책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최근 들어 비만 오면 단 시간에 많은 강수량을 기록하는 게 패턴이었던 만큼 늘상하는 루틴한 느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더 각별한 경각심으로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작년에 몇 차례 재해를 겪으면서 항상 민·관·군·경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소방 그리고 모든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일 때 모든 재해와 사고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은 준비 회의가 그런 의지를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성북 365 청결기동대, 365일 청소 공백 없는 '클린 성북' 만든다

관내 유동 인구 밀집지 일대의 청결을 '365일' 책임지는 서울 '성북 365 청결기동대'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북구는 그동안 가로청소 환경공무원의 작업이 끝나는 시간대인 평일 오후 4시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 골목 환경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을 종종 받아 왔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신규근로자를 채용해 '성북 365 청결기동대'를 꾸렸다. 이들은 청결 공무원과 함께 2개 조를 편성해 동선동 하나로거리와 안암동 참살이길 일대에서 환경정비와 야간민원 처리, 행사 현장 정비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가로공무원 작업 공백시간인 평일 및 공휴일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말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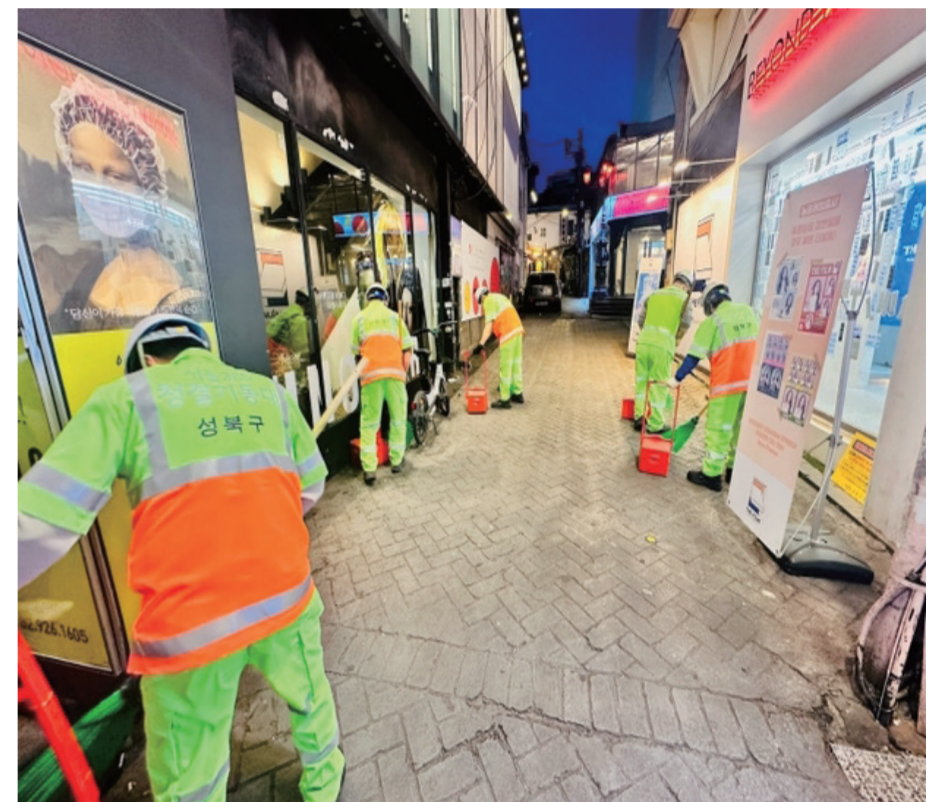
또한 청결기동대는 성북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올해 새로 도입한 '청소

통합 민원 처리 시스템(CLINK)'을 활용하여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를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청결기동대가 무단투기 현장 사진과 청소 전, 후 사진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위치의 주소와 GPS정보에 시각화된 빅데이터 지도로 보관되며, 누적되는 장소는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청결기동대의 활동구역으로 선정된 무단투기 특별관리 장소는 총 13개소이며, 청소작업이 올해 4월까지 총 595회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청결기동대의 활동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 거리 청결 상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반응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관내 유동 인구 밀집 지역 내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365일 깨끗한 성북 거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일자리로 활력 UP...영등포구, '2023 희망 취업박람회' 열어

영등포구가 5월 24일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과 야외광장에서 '2023 희망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영등포구, 양천구, 서울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4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보다 폭넓은 구인·구직 만남의 장이 마련된다.

취업박람회는 ▲기업 채용관 ▲취업지원관 ▲부대행사관 ▲야외홍보관으로 구성된다. 운영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 반까지이며 청년, 중장년, 장애인, 어르신 등 취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기업채용관에서는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1:1 현장면접을 진행하며, ㈜에스제이비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주)현대그린푸드 ▲(주)커피빈코리아 ▲이랜드파크퀵싱턴호텔 여의도 ▲효성ITX(주) 등 총 26개 구인기업이 참여한다.

사무, 영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60여 명 규모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기업 현황과 근무 조건 등 상세한 정보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우리구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직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 상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취업지원관' ▲AI 면접 체험부스 운영 등 '부대행사관' ▲청년, 어르신, 다문화 등 유관 기관별 취업 지원 등 '야외홍보관'이 운영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글로벌 윤리 소비문화 확산해요" 글로벌 상생도시 서초, '서리풀 공정무역 페스티벌' 열어

전 구청장, "공정무역 가치를 알리고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 노력으로 '글로벌 상생 도시' 서초 만들 것"

서울 서초구는 13일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공정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착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서리풀 공정무역 페스티벌'을 12일 오후 1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정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고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상생 도시' 서초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구민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무역 홍보 캠페인, 공정무역 바자회 OX 퀴즈, 1,600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공정무역 바자회 등 공정무역의 가치를 알리고 제품 이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했다.

행사장 한 켠에는 공정무역을 통해 마련된 원재료를 활용한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신타피 만들기, 우드카빙 젓가락 만들기 등 체험부스를 마련했다.

또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 동아리 '뽕사모'에서는 공정무역 설탕과 코코아를 활용해 만든 뽕 200개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재과, 재배를 통한 공정무역 제품 홍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꾸준히 공정무역 관련 기념행사에 멘토로 참석했던 대한민국 최초 '밀리언셀러 소설가' 김홍신 작가를 초대해 '인생사유설 명서'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해 더욱 풍성한 행사 만들었다.

현재 구는 '2023년 서초구 공정무

역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가치소비를 확대하고 지구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정무역 장려에 힘쓰고 있다.

이에 지난 9일, 국제공정무역 한국 사무소와 공정무역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청 1층 로비에서 공정무역 제품 홍보, 전시를 위한 캠페인을 열었으며, 지난 11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기본소양 및 심화 교육으로 구성된 '공정무역 교실'을 운영했다.

향후 구는 관내 학교, 기업으로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실, 공정무역 창업자 발굴 및 판매자 지원,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동희/기자

송파구, 롯데 6개 계열사와 석촌호수 수질개선 본격 추진!

송파구가 올해를 석촌호수 수질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석촌호수 명품화' 조성에 한 발짝 더 나아간다.

송파구는 15일 오후 2시 석촌호수 동호 수변무대에서 '2023 석촌호수 수질개선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송파구청, ㈜롯데물산 등 6개 계열사, (재)녹색미래, ㈜젠스가 참여한다.

지난 2년 간 '석촌호수 수질개선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했던 구는, 지난해 8월 '석촌호수 수명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목표수질 달성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협약에 참여하는 9개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수질개선 방안을 찾아 깨끗하고 맑은 석촌호수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송파구는 수질 및 탁도개선 수행을 위한 행정을 지원하고,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롯데물산 등 6개 계열사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금조성 및 제반 사항을 지원하며, (재)녹색미래는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검수와 시민참여를 통한

환경 모니터링을 맡는다. ㈜젠스는 수질 및 탁도개선을 위한 정화작업을 담당하고 수질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이다.

9개 기관장은 협약식 이후 현장에서 선박을 타고 친환경 약품을 투입해 수질 오염성분을 제거하는 수질정화 작업 시연에도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계절 내내 깨끗하고 아름다운 석촌호수를 조성하여, 구민들께서 도심 속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는 석촌호수를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 다양한 축제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서울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빛이 만개하는 봄에는 '아름다운 봄이야기, 호수의 봄축제'를 개최했으며, 가을과 겨울에는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로 빛의 향연을 선보였다.

황규석/기자



금천구, 브랜드 개발을 위한 전방위 협조체계 구축한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구민,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

금천구는 5월 11일 '금천구 도시 브랜드 개발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브랜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브랜드 개발에 대한 깊이 있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방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구민, 전문가, 구의원, 공무원을 포함해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발족식에서 추진단은 앞서 용역사에서 실시한 금천구 기초연구조사

와 구민, 공무원 대상 사전인터뷰 결과와 바탕으로 금천구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향후 진행하는 주민 워크숍, 디자인 선호도 조사 등 단계별 일정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금천구는 앞으로 △ 핵심 키워드 의견수렴 이벤트 △ 구민 그룹 워크숍 △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브랜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영성 추진단장은 "금천의 역사, 문화, 첨단산업 등이 입체적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담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하며 금천구 브랜드 개발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추진단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변화하는 금천의 정체성이 오롯이 담긴 금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세계 생활체육인 올림픽, 국내에서 처음 열린다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종합경기대회,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국내에서 처음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등 14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 9천5백여명과 일본과 중국, 몽골, 호주, 미국, 우간다 등 해외 71개국 4천5백여명의 생활체육인 총 1만4천여 명이 축구, 탁구, 배드민턴, 골프, 육상, 수영 등 25개 종목에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국적을 초월한 우정을 나눌 예정이다.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올림픽' 세계 각지의 체육단체 동호인, 전직 선수, 은퇴 선수 등 만 30세 이상 생활체육인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선수들은 어느 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국가대항전인 엘리트 대회와 차이가 있다.

마스터스대회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실력을 겨루고 경쟁을 펼치는 만큼 '생활체육인의 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제마스터스대회 협회는 1985년에 발족한 이후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최초의 월드 마스터스대회는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으며,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처음 열린 이후 전북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다.

14개 시군 문화행사 확대, K-컬처 탑재 개최식으로 스포츠 관광 활성화 도모

이번 대회를 계기로 스포츠 관광 활성화도 도모한다. 전북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스포츠와 함께 특색있는 지역 문화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전주, 군산, 익산 등 14개 시군에서 전주대사습놀이 축제, 군산 연등제, 익산 백산서원 춘계대제 등 문화행사를 확대 운영한다.

5월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K-컬처를 탑재한다. 가수 영탁, 나태주, 오마이걸의 케이팝 공연과 서예 퍼포먼스 등으로 K-컬처의 매력을 전 세계인에게 뽐낼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회식에서는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이 참석해 대회 시작을 선언하고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 세르게이 부브카 회장은 참가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세르게이 부브카 회장은 '인간 새'라고 불린 우크라이나 출신 장대높이뛰기 선수이기도 하다.

조용만 차관은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로, 생활체육 부문에서 국제스포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다"라며 "국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무대로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좋다, 하자, 된다! 영양의 꿈과 희망, 생생버스가 응원합니다

- 세 번째 여정, 별천지 영양 산나물 축제장 찾아 양수발전소 유치 응원 -
- 도민의 편에서 도민과 더 가까이. 영양의 재도약에 경북의 힘 충전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별천지 영양을 찾아 민선8기 도정방향을 공유하고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세 번째 생생간담회를 가졌다. 영양군 대회의실에서 열린 생생간담회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장, 박종철 경북도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100여명의 군민이 참석했다.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생생토크'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영양군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등 군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지사는 노후한 지방도 918호선(영양-영덕-봉화)의 국지도 승격 요청에 경북 북부내륙권과 환동해안권 연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도 918호선의 노선 승격을 국도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1915년 일제강점기에서 시작해 2018년 경영난으로 폐업했지만 도시재생 리모델링 사업으로 2022년 12월 재운영을 시작한 영양양조장(발효공장 1991)을 방문해 새롭게 개발한 막걸리 '은하수' 제조과정을 살펴보고 프리미엄 발효식품 사업 본격화를 응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된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염원 결의대회가 이뤄진 영양산나물축제*장에서 군민들과 마음을 모아



'1,219**인분 산나물 비빔밥 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 2023년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 ** 영양 일월산 높이 : 1,219m

생생간담회는 '지방이 살아야(生)나라가 산다(生)'의 의미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현장소통프로젝트'다.

생생버스를 타고 경북 대전환과

지역의 재도약을 향한 경북의 힘을 충전하고자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과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건의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생생버스: 6. 8(목) 봉화군, 6. 12.(월) 울릉군 예정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양이 곧 경북이고 경북이 곧 영양이라며, 대한민국 제11호 양수발전소 유치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힘을 보탬 것이며 주어진 기회를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수원시, 세계인의 날 기념 '제15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개최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21일 인계동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제15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가 열린다.

수원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주최하고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이 축제에서는 세계전통의상 패션쇼, '세계인의 날' 기념식, 특별 퍼포먼스, 특집 공개방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명나는 길놀이퍼레이드(사물놀이)와 함께 중국, 일본, 몽골 등 11개국 100명의 외국인 주민이 세계전통의상 패션쇼를 진행하며 개막식을 연다.

이어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 모범외국인 주민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자를 표창한다. 또 2023

년을 기념해 2023인분 규모의 오색 롤케이크를 나누는 특별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이주민 자조모임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공연팀과 다국적결구름 아이씨유, 트로트 가수 서인아씨가 특집 공개방송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야외 행사로 외국인 주민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준비 중이며, 이주민과 선주민이 서로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음성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음성품바축제서 신명나게 놀아 보자!

선선한 바람에 햇살이 가득한 5월, 가족 단위 나들이에 딱 좋은 축제가 있다. 온 가족이 모두 만족할만한 축제, 바로 음성품바축제다.

17일부터 21일까지 음성성성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품바축제는 거지 성자로 불리며 오늘날 꽃동네 설립의 모태가 된 최귀동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비롯됐으며, 그의 박애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학과 풍자의 대명사 품바와 결합해 오늘날 품바축제가 탄생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업그레이드되는 군 대표 축제를 앞두고 음성군은 손님 맞을 준비를 모두 마쳤다.

품바축제하면 이름처럼 각설이를 빼놓을 수 없다.

전국의 각설이들이 총출동하는 품바공연이 하루 종일 이어지며 특히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품바왕 선발대회에는 중간나, 이재주, 초롱이, 고철통, 허야, 최고야 등 18팀의 품바공연단이 출연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나이 지긋한 분들이 좋아할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한편, 올해 축제의 주제는 '품바, 젊음을 보듬다'로, 젊음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 키즈존과 MZ존을 신규로 마련했다.

키즈존에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미니가차, 범퍼카, 에어바운스, 마술공연, 풍선아트 공연이 진행되고 MZ존에서는 청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청년체험마차(생맥주시음, 포토존, MZ력 테스트 등)와 음성래퍼캠프페스티벌이 진행된다.

18일 목요일에는 Nasty Kidz가 공연하고 20일 토요일 식보이, 지산 등 유명래퍼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19일 금요일에는 글로벌 품바래퍼경연대회가 개최되며, 치열한 예선전을 통과한 12팀이 본선에서 멋진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축하공연으로 원슈타인이 출연한다.

20일 토요일 전국청소년품바댄스경연대회에서는 총 상금 400만원을 걸고 최고의 청소년 댄스팀들이 출전한다. 축하공연으로 제이블랙, 오천이 출연하며 어린 자녀와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멋진 추억을 안겨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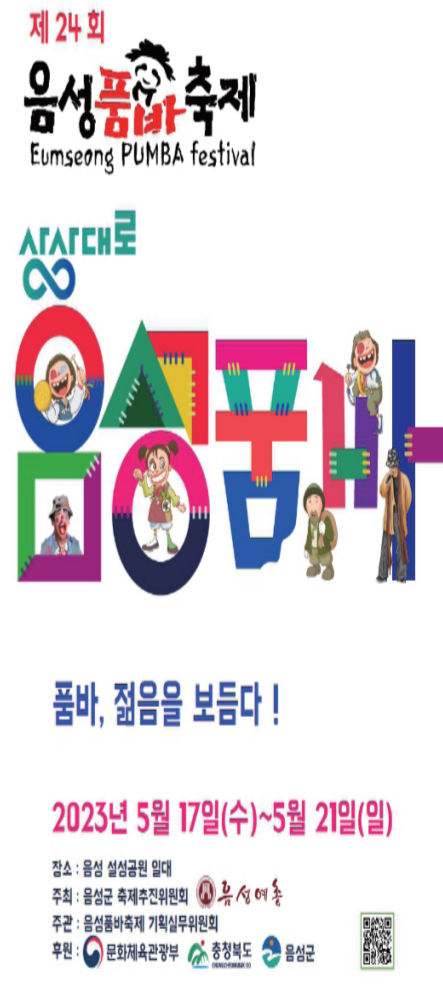
신나게 망가지며 즐기고 싶다면 20일 토요일 전국품바길놀이퍼레이드가 제격이다. 15팀 1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는 시가지를 돌고 동시에 플래시몹을 진행하며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다.다양한 체험도 가득하다.

수정고 다리 밑에 설치된 추억의 거리에서는 달고나 가게, 추억의 교실, 공예 체험, 추억의 고고장이 설치되고 포토존도 준비돼 있다. 또 건강나눔체험관에서는 혈압, 혈당 측정, 족욕, 안마기를 체험해볼 수 있다.

사랑의 강통나무에서는 강통나무에 오재미를 던져보고 성공하면 기념품도 지급된다. 플라스틱방앗간에서는 플라스틱을 주워서 재활용 체험을 진행하고 품바촌에서는 음악 체험, 페이스페인팅, 품바의상, 가락 배우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품바축제장과 가까운 거리에는 반기문평화기념관, 음성품바재생예술체험촌, 백야목재문화체험장, 팩토리투어센터, 한독의약박물관, 수소안전유지업 등 함께 가보면 좋을 관광지가 많이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가정의 달 5월의 가족여행은 음성품바축제장이 제격이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며 "신명나게 활기찬 기분을 느끼고 싶다면 품바축제에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3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 1차 라인업 발표

한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굴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1차 라인업이 공개됐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23년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 출연하는 32개 팀의 명단을 1차로 공개했다.

헤드라이너로 2001년 포스트 펑크 리바이벌이라는 장르를 개척하며 데뷔 이후 줄곧 세계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스트로크스(The Strokes)가 지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을 찾는다. 스트로크스는 현재 해외 유명 음악 축제의 헤드라이너로 활동 중이고, 2021년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락 앨범을 수상한 정상급 락 밴드로 국내 팬들의 내한 공연 관심을 뜨거워 팀이다.

또 오아시스 출신 앤디 벨(Andy

Bell)이 속해 있는 영국 슈게이징 장르의 대표주자인 라이드(Ride)를 비롯해 세계를 대표하는 10여 팀의 뮤지션들이 출연한다.

국내 출연진으로는 특유의 실험적인 음악이 돋보이는 젊은 감각의 전설적인 김창완 밴드를 비롯해 얼터너티브, 사이키델릭, 프로그레시브 등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모던 락 밴드 검정치마, 자우림의 보컬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보컬리스트 김윤아, 새소년, 이승윤, 실리카겔, 카더가든, 갤럭시 익스프레스, 체리필터, 권진아, 이남치 등의 아티스트들이 1차 라인업에 포함돼 있다.

올해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라인업을 공개하기 전부터 락마니아

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된 블라인드 티켓은 2분 만에 한정 수량 5,000장이 매진되는 저력을 보였다. 블라인드 티켓 매진에 이어 얼리버드 티켓(20% 할인, 국민카드 결제 시 5% 추가 할인)은 인터파크 에매처를 통해 12일 오후 2시에 오픈, 판매될 예정이다.

2023년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진 시 문화체육관광공장은 "대한민국 음악 페스티벌의 효시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인천의 락(ROCK)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대표 축제로, 올해 더욱 화려한 라인업으



로 2023년 최고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역대 최대 규모인 13만 명이 관람했고, 556억 원에 달하는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

김중남기자



제62회 The 62nd JeollaNam-do Sports Festival 전라남도체육대회

2023. 5. 12^토 ▶ 5. 15^일 (4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주최】전라남도체육회

【주관】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후원】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제31회 The 31st JeollaNamdo Sports Festival For The Disabled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2023. 5. 24^수 ▶ 5. 26^금 3일간

완도군 공설운동장 외 보조경기장

주최 | JNSAD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